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지침서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지침서
발행처 :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발행인 : 이송지
발행일 : 2010년 4월 20일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81-2 201호
전 화 : 02-323-0520
팩 스 : 02-323-1695
http://www.gongdong.or.kr
gongdong@kornet.net

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지침서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2007년 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지침서 제작에 참여하신 분들(가나다 순) :
김경옥(하니), 김경태(둘리엄마), 김기나(진달래), 김미애(스콜라)
송경선(달님), 신현주(콩쥐), 윤일순(개구리), 이말순(코뿔소)
정영화(마법사), 장혜경(무지개꽃), 최윤희(파랑새), 호정애(호랑이)

2010년 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지침서 개정에 참여하신 분들(가나다 순) :
김미애(스콜라), 김우(느리), 김성희(기린), 나은미(아자작),
이현숙(거인), 함선영(두부), 호정애(호랑이)

차 례

Ⅰ. 총론 ····· 5
1. 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제도의 필요성 ····· 7
2. 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 9
3. 공동육아어린이집의 인증 – 초기인증과 재인증 ····· 9
4. 공동육아어린이집의 인증과정 ····· 10
1) 초기인증 ····· 10
2) 재인증 ····· 16
3) 인증시설 사후관리 ····· 21
5. 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지침서의 기본방향과 구성 ····· 22
6. 용어 해설 ····· 23

Ⅱ. 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지표 ····· 27
1. 운영부문 ····· 29
2. 교육부문 ····· 31

Ⅱ. 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지표 해설 ····· 35
1. 운영부문 ····· 35
[영역 1] 운영기구 ····· 35
가. 총회 ····· 35
나. 이사회 ····· 36
다. 교사회 ····· 39
[영역 2] 조합원 ····· 41
가. 조합원 현황과 모집 ····· 41
나. 조합원교육 및 활동 ····· 43
[영역 3] 어린이집 종사자 채용과 관리 ····· 45
가. 종사자 채용 및 현황 ····· 45
나. 종사자 복지 ····· 47
다. 종사자 교육 ····· 48

[영역 4] 재정 관리 ····· 50
가. 보육시설 운영조건 ····· 50
나. 조합 재정 관리 ····· 51
다. 어린이집 재정 관리 ····· 52
라. 예·결산 ····· 53
마. 재정문서 ····· 54
[영역 5] 회원활동 및 연대활동 ····· 55
가. 회원활동 ····· 55
나. 연대활동 계획과 진행 ····· 56
2. 교육부문 ····· 58
[영역 1] 터전 환경 ····· 58
가. 터전 환경 ····· 58
나. 보·교육활동 자료 ····· 63
[영역 2] 터전 운영 ····· 67
[영역 3] 보·교육과정 ····· 69
가. 보·교육활동의 계획 및 구성 ····· 69
나. 보·교육활동의 실행 ····· 76
1) 하루일과의 구성과 흐름 ····· 76
2) 자유놀이 ····· 80
[영역 4] 상호작용 ····· 83
[영역 5] 건강과 위생 ····· 88
가. 청결과 위생 ····· 88
나. 건강과 영양 ····· 92
[영역 6] 안전 ····· 94
가. 실내외 안전관리 ····· 94
나. 보호와 대처방안 ····· 97

부록. 문서목록 ····· 101

Ⅰ.
총론

1. 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제도의 필요성

1994년 '신촌지역공동육아협동조합 우리어린이집'이 개원한 이래 매년 새로운 공동육아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어린이집이 개원하였다. 최근에는 다소 그 속도가 줄어들긴 했으나 2010년 4월 현재, 공동육아어린이집은 전국에 62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러한 공동육아의 확산은 각 가정과 개인에게 맡겨져 있는 육아 문제를 사회 공동의 문제로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공동체적 보육에 대한 요구에서 비롯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아이들에게는 사람과 자연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교육에 대한 사고의 전환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데 바람직한 삶의 터전을 만드는 일은 공동육아의 실천에 있어 핵심적인 일이며, 특히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행복권이라는 아동의 권리 차원에서도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공동육아의 구성원들은 협동조합이라는 틀을 만들어 서로의 가치와 의미를 교류하고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한 자발적인 부모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자치적으로 수행해나간다. 공동육아의 가치와 의미는 구성원들이 그 터전을 마련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하는 터전의 일상생활 속에 녹아들어 있어야 한다.

공동육아는 우선적으로 각 터전의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수반하는 양적 성장을 통해 그 공공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초기의 공동육아는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하는 매일의 생활 속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육아라는 생각과 함께 출발했다. 즉 삶과 교육은 분리된 것이 아니며, '일상' 그 자체에서 '육아'와 '교육'이 발생한다는 생각이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을 보낸 후인 2004년 10월,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에서는 '참여보육과 생태적 성장'이란 주제로 제1회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여 공동육아가 지나온 그동안의 역사와 성과를 담아내는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공동육아 구성원들이 실천해온 현장의 경험을 공동의 교육과정으로 체계화하는 이 자리를 통해 양적인 성장 뿐 아니라 질적인 향상의 공유에 보다 큰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각 터전에서는 아이들에게 어떤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보완하여, 공동육아의 질적 수준을 높여나가는 일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 특히 새롭게 조합을 결성하고 공동육아어린이집으로 출발하는 시설에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공동육아를 왜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목표와 방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터전의 교육적 환경을 구성해야 한다. 더불어 어린이집 운영 및 교육을 위한 각 영역별 자료와 활동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돕기 위해,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에서는 터전 설립을 위한 안내와 제반 정보를 제공하고, 이후 공동육아어린이집으로서의 토대를 제대로 갖추었는지를 확인하는 '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을 시행해왔다.

‘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은 각 어린이집이 먼저 인증기준에 따라 현재의 터전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진단하여 개선과정을 거친 후, 실사방문 평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여기에는 공동육아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자의적인 해석을 막고, 최소한의 공동육아 틀을 유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인증의 결과보다는 과정을 통하여 공동육아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보·교육과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며, 터전환경을 개선하려는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는데 더욱 의미를 둔다.

2005년 공동육아는 보육의 보편화 추세와 공동육아의 대내외적인 활동의 결과, ‘부모협동보육시설’로서 법제화됨으로써 사회제도 안에서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되었다. 한편, 지난 2005년부터 국가는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보육시설 평가인증’ 제도를 실시하고, 보육의 질 향상과 재정 지원을 내세워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에 공동육아에서는 공동육아의 질적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보다 향상된 사회공동체적 보육으로 정착해야 한다는 성찰의 목소리와 함께 ‘공동육아 인증제’에 대한 재정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에서는 ‘공동육아 인증제’를 새롭게 정비하여, 각 터전의 안정화와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제도 재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개발한 ‘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지침서’(이하 ‘인증지침서’)는 그 동안 실시되어 오던 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을 보다 강화하고 ‘정기적인 재인증’을 실시하여, 각 터전의 운영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개별적인 터전 차원에서 노력해오던 공동육아의 질적 향상 노력을 전체 공동육아 차원으로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07년 이후 ‘공동육아 재인증’에 참여한 참여자들은 재인증이 현장의 자발적 노력을 통해 운영과 교육을 점검·보완하고, 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공동육아의 질적 수준을 높여나가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 인증지침서가 공동육아 구성원들이 함께 추구해야 할 모든 가치나 개별 터전의 다양한 상황을 모두 담아낸 것은 아니지만, 공동육아의 구성원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육아공동체를 구성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 대표적인 ‘부모협동보육시설’로서 공동육아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제도를 구축해나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2. 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는 법인의 특별위원회로 독립 구성하며, 심의대상 선정, 현장실사, 인증심의,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인증의 전 과정을 담당한다. 인증위원은 공모를 거쳐 부모와 교사, 법인 관계자 등 총 6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법인 이사회에서 임명한다. 인증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인증위원의 자격은, 부모의 경우 만 2년 이상 공동육아어린이집 경력과 이사 역할을 역임한 자, 교사의 경우 만 6년 이상 공동육아어린이집 경력과 대표교사 역할을 역임한 자, 법인 관계자는 법인의 직함을 갖고 있거나 실무를 담당하는 자로 한다.

3. 공동육아어린이집의 인증 – 초기인증과 재인증

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제도에는 초기인증과 재인증이 있다.

초기인증은 어린이집 개원 후 공동육아어린이집으로서의 기본 골격을 갖추었는지를 점검하는 단계이다. 재인증은 구성원들이 교체되는 시점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변화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단계로서, 초기인증을 받은 후 매 3년마다 받아야 한다.

초기인증은 인증심의과정을 통해 인증통과, 인증유보, 인증탈락을 결정한다.

- 인증통과 : 지표의 필수적인 사항을 충족했을 경우.
- 인증유보 : 지표의 필수적인 사항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수정 보완의 여지가 있을 경우. 유보사유에 대해 어린이집에 문건으로 통보하고, 이를 수정한 이후 재심사하여 인증한다.
- 인증탈락 : 지표의 필수사항에 대해 결정적인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탈락사유에 대해 어린이집에 문건으로 통보한 후, 6개월 이후에 재심사한다.

재인증은 인증심의과정을 통해 인증통과, 인증유보를 결정한다.

- 인증통과 : 지표의 필수적인 사항을 충족하고 권장사항을 충족한 경우.
- 인증유보 : 지표의 필수사항이 충족되지 못하였거나 충족되었더라도 권장사항이 미비된 경우 인증유보하게 되며, 유보사유를 어린이집에 문건으로 통보하고 이를 수정한 이후 재심사한다.

4. 공동육아어린이집의 인증과정

초기인증의 과정은 ① 준비모임의 결성 및 법인 회원 가입, ② 개원, ③ 인증심의 대상 선정, ④ 자체점검, ⑤ 현장 실사, ⑥ 인증심의 및 결정, ⑦ 사후관리의 과정을 거친다.

재인증의 과정은 ① 인증 신청, ② 인증심의 대상 선정, ③ 자체점검, ④ 현장 실사, ⑤ 인증심의 및 결정, ⑥ 사후관리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1) 초기인증

초기 인증과정은 대상선정, 자체점검, 현장실사, 인증심의 및 결정, 사후관리의 과정을 거친다.

〈 초기인증 과정 〉

1단계 대상선정 (1개월)	◦ 인증위원회에서 심의, 대상 선정 ◦ 참여비 납부 및 참여확정	
⇩		
2단계 자체점검 (2~3개월)	◦ 자체점검위원회 구성(3인~5인 이내) ◦ 자체점검 실시 ◦ 인증 조력단 파견(이사회, 교사회 면담) ◦ 자체 개선방안 마련 및 시행 ◦ 자체점검보고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조력 (인증위원회)
⇩		
3단계 현장실사 (1개월)	◦ 현장실사단 파견(2인) ◦ 현장실사 실시 ◦ 현장실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	
⇩		
4단계 인증심의 (2개월)	◦ 인증위원회에서 인증 심의 및 결정 ◦ 인증심의(수정 권고사항 제시, 개선 노력) ◦ 인증결정(인증통과, 인증유보, 인증탈락)	⇨ 인증결과발표 인증현판증정

Ⅰ. 1단계 : 대상선정

대상선정 단계에는 인증위원회 심의, 대상 선정 및 공문 발송, 참여비 납부 및 참여 확정으로 이루어진다.

■ 초기인증 참여대상

○ 준비모임 결성 및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회원가입 후 개원한 경우, 조합원 충원이 마무리되고 정식으로 교사회가 구성된 후 6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나면 인증심의 대상이 된다.

○ 운영 중인 어린이집이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회원가입을 했을 경우,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회원가입한지 3개월 이후에 인증심의 대상이 된다.

설립을 위한 준비모임,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회원가입, 개원

공동육아어린이집 준비모임에 10가구 이상 참여하게 되면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의 회원 등록 신청이 가능해진다.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에서는 간담회를 통해 준비모임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회원 가입을 받는다. 회원 가입 이후 준비모임은 전화 상담, 정보 수집, 교육 등을 통해 공동육아어린이집의 설립 및 운영기준을 숙지하고 이를 토대로 개원 일정과 운영방식을 정해나간다.

보호자 15인 이상이 되면 '부모협동보육시설'로 등록이 가능하므로 어린이집 개원이 가능하지만, 초기 부담을 줄일 수 있기 위해서는 되도록 조합 규모의 70-80% 이상이 충원되었을 때 개원하도록 한다.

■ 대상선정

○ 인증위원회에서는 심의대상을 선정하고, 해당 어린이집에 공문으로 안내한다. 단, 어린이집의 내부사정과 인증위원회의 진행일정에 따라 선정 시기는 조절될 수 있다.

■ 소요기간

○ 초기인증을 받는 데에는 약 6개월~7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 자체점검기간은 어린이집의 선택에 따라 2개월 또는 3개월로 진행된다.

■ 인증 참여비

○ 초기인증에 참여하는 어린이집은 참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초기인증 참여비는 25만원(정원 20인 이하) 또는 30만원(정원 20인 이상)이며, 대상

선정 공문 수신이후 2주일 내에 정해진 계좌에 납부한다.

○ 환불 : 인증참여 중에 부득이하게 참여를 중단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참여비를 환불할 수 있다.

구분	자체점검 시작 이전	조력단 파견 이후~ 현장실사단 파견 이전	현장실사단 파견 이후
환불	100%	50%	0%

■ 초기인증 참여취소가 되는 경우

① 인증 진행 일정에 따라 참여하지 않는 경우

② 인증 진행 중 소재지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③ 인증위원회에서 더 이상 인증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초기인증 참여취소 절차

① 어린이집에서는 참여취소사유 발생 사실을 인증위원회에게 보고한다.

② 인증위원회는 참여취소사유 발생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③ 인증위원회는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참여취소 여부를 결정하고, 관련 조치를 한다.

Ⅱ. 2단계 : 자체점검

자체점검 단계는 자체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지침서〉 중 필수항목을 중심으로 조합과 어린이집의 운영과 교육 전반을 점검을 실시하고, 자체점검보고서 및 문서자료를 작성 · 준비하여 인증위원회에 제출한다.

○ 공동육아어린이집에서의 인증은 교사회와 부모의 참여와 협력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지므로, 자체점검을 진행하기 전에 이사회에서는 어린이집의 부모와 교사에게 인증 참여의 필요성 및 의미를 안내한다.

■ 자체점검위원회 구성

○ 조합이사장, 원장(대표교사), 교사 1인, 부모 2~4인을 포함하여 3~7인 이내로 구성

○ 부모의 경우 어린이집의 이사이거나 이사를 역임한 자

○ 점검기간 : 어린이집에서 2개월 또는 3개월 중 선택

■ 자체점검 실시

○ 자체점검위원은 초기인증의 토대가 되는 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지표를 숙지한다.

○ 자체점검보고서를 이용하여 운영과 교육 전반을 점검해 본다.

○ 점검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개선해 나간다.

○ 이때 인증위원회에서는 조력단을 파견하여 상담, 현장 방문, 면담 등의 도움을 준다.

○ 자체점검기간이 종료되기 2주 전부터 자체점검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최종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체점검보고서에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조력이란

① 조력단 2인 파견
② 조력은 방문, 관찰, 교사회와 이사회 면담 등으로 이루어진다.
③ 조력내용은 인증지표 설명, 현장관찰, 인증관련 상담으로 이루어진다.
④ 조력일정은
9:00~9:30 현장도착, 조력일정논의, 현장관찰 시작
2:30~3:30 교사회 면담
6:00 현장관찰 마무리
7:00 이사회 면담
* 위의 일정은 어린이집의 하루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Ⅲ. 3단계 : 현장실사

자체점검보고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현장실사단이 파견된다. 현장실사는 현장실사자가 해당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지표에 따라 객관적으로 관찰, 보고하는 과정이다.

■ 현장실사 실시 전

○ 인증위원회에서는 현장실사단 2명을 선정한다.

○ 현장실사일은 인증위원회가 정하여 해당 어린이집에 공지한다.

○ 현장실사일에 어린이집은 특별한 행사가 없고, 현원 2/3이상이 출석 가능하도록 하여 원활한 현장실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 현장실사 실시

○ 현장실사는 인증위원회에서 자격을 부여받은 현장실사단 2인이 파견된다.

○ 현장실사 시간

현장도착 예정시간 오전 8:30~9:30

실사종료 예정시간 오후 5:30~6:30

○ 실사 당일 어린이집에서는 인증지표와 관련하여 실사대상이 될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해 놓는다.

■ 현장실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실사단은 자체점검보고서 및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하루 일과와 교육활동 관찰, 면담 결과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이를 토대로 현장실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위원회에 제출한다.

Ⅳ. 4단계 : 인증심의 및 결정

현장실사가 완료되면 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지표를 기준으로 인증심의가 진행된다.

■ 초기인증 심의

○ 인증위원회에서는 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지표를 기준으로 자체점검보고서, 제출서류, 실사보고서, 인증위원회 의견을 토대로 심의하여, 공동육아어린이집으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부분에 대한 수정, 권고사항을 해당 어린이집에 문서로 제시한다.

○ 인증지표의 문구 중 “~해야만 한다.” 는 기본사항이다.

■ 초기인증 최종결정

어린이집에서 수정,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조치를 취했음을 확인한 후 인증한다.

① 인증통과 : 지표의 필수적인 사항을 충족했을 경우

② 인증유보 : 지표의 필수적인 사항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수정 보완의 여지가 있을 경우

③ 인증탈락 : 지표의 필수사항에 대해 결정적인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의 필수요소

① 재정 투명성(월 재정 운영 공유)
② 부모참여 제도화(날적이, 방모임, 일일교사, 총회 등)
③ 교사 대 영유아의 비율
④ 영양과 급식 및 안전에 대한 기준
⑤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회원활동
⑥ 공동육아 교육과정 실현
⑦ 터전의 특성 살리기
⑧ 지역자원 활용(단오잔치, 지역 자원 활용 등)

■ 초기인증 사후관리

○ 유보되었을 경우, 유보사유에 대해 어린이집에 문건으로 통보하고, 유보사유를 수정한 이후 재심사하여 인증한다.

○ 탈락되었을 경우에는 탈락사유에 대해 어린이집에 문건으로 통보한 후, 6개월 이후에 재참여하여 심사한다.

○ 탈락시 초기인증 재참여는 재심사 선정 ⇒ 재점검 ⇒ 재실사 ⇒ 재심의 등으로 진행하며, 기존방법과 동일하며, 재참여비를 납부한다.

○ 어린이집에서 이를 수정보완하기 위하여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 재인증

재인증과정은 인증신청, 대상선정, 자체점검, 현장실사, 인증심의 및 결정, 사후관리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 재인증 과정 〉

1단계 인증신청 (1개월)	◦ 참여 신청 접수 ◦ 인증위원회에서 참여 대상 선정 ◦ 참여비 납부 및 재인증 설명회 ◦ 참여확정	
⇩		
2단계 자체점검 (2~3개월)	◦ 자체점검위원회 구성(3인~7인 이내) ◦ 자체점검 실시(2개월 또는 3개월) ◦ 인증 조력단 파견(2인) ◦ 자체 개선방안 마련 및 시행 ◦ 자체점검보고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조력 (인증위원회)
⇩		
3단계 현장실사 (1개월)	◦ 현장실사단 파견(2인) ◦ 현장실사 실시 ◦ 현장실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	
⇩		
4단계 인증심의 (2개월)	◦ 인증심의위원회 구성 ◦ 인증심의(수정 권고사항 제시, 개선 노력) ◦ 인증결정(인증통과, 인증유보)	⇨ 인증결과발표 인증현판증정

Ⅰ. 1단계 : 대상선정

대상선정 단계에는 참여 신청, 인증위원회 대상 선정, 재인증 설명회 참석, 참여비 납부 및 참여 확정으로 이루어진다.

■ 재인증 참여대상

○ 인증위원회에서는 초기인증, 재인증을 통과한지 3년 이상 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 참여를 희망하는 어린이집에서는 재인증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접수한다.

○ 2000년 이전에 개원한 곳은 초기인증을 통과한 것으로 인정한다.

■ 대상선정

○ 인증위원회에서는 개원시기와 현 구성원 연차 등을 고려하여 심의대상을 선정하고, 해당 어린이집에 공문으로 안내한다.

■ 소요기간

○ 재인증을 받는 데에는 약 6개월~7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 자체점검기간은 어린이집의 선택에 따라 2개월 또는 3개월로 진행된다.

■ 인증 참여비

○ 재인증에 참여하는 어린이집은 참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재인증 참여비는 25만원(정원 20인 이하) 또는 30만원(정원 20인 이상)이며, 대상선정 공문 수신이후 2주일 내에 정해진 계좌에 납부한다.

○ 환불 : 인증참여 중에 부득이하게 참여를 중단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참여비를 환불할 수 있다.

구분	자체점검시작 이전	조력단 파견 이후~ 현장실사단 파견 이전	현장실사단 파견 이후
환불	100%	50%	0%

■ 재인증 참여취소가 되는 경우

① 인증 진행 일정에 따라 참여하지 않는 경우

② 인증 진행 중 소재지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③ 인증위원회에서 더 이상 인증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재인증 참여취소 절차

① 어린이집에서는 참여취소사유 발생 사실을 인증위원회에게 보고한다.

② 인증위원회는 참여취소사유 발생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③ 인증위원회는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참여취소 여부를 결정하고, 관련 조치를 한다.

Ⅱ. 2단계 : 자체점검

자체점검 단계는 자체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지침서〉 중 필수항목과 권장사항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지 조합과 어린이집의 운영과 교육 전반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자체점검보고서 및 문서자료를 작성 · 준비하여 인증위원회에 제출한다.

○ 공동육아어린이집에서의 인증은 교사회와 부모의 참여와 협력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지므로, 자체점검을 진행하기 전에 이사회에서는 어린이집의 부모와 교사에게 인증 참여의 필요성 및 의미를 안내한다.

■ 자체점검위원회 구성

○ 조합이사장, 원장(대표교사), 교사 1인, 부모 2~4인을 포함하여 3~7인 이내로 구성

○ 부모의 경우 어린이집의 이사이거나 이사를 역임한 자

○ 점검기간 : 어린이집에서 2개월 또는 3개월 중 선택

■ 자체점검 실시

○ 자체점검위원은 인증의 토대가 되는 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지표를 숙지한다.

○ 자체점검보고서를 이용하여 운영과 교육 전반을 점검해 본다.

○ 점검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개선해 나간다.

○ 이때 인증위원회에서는 조력단을 파견하여 상담, 현장 방문, 면담 등의 도움을 준다.

○ 자체점검기간이 종료되기 2주 전부터 자체점검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최종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체점검보고서에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조력이란

① 조력단 2인 파견
② 조력은 방문, 관찰, 교사회와 이사회 면담 등으로 이루어진다.
③ 조력내용은 인증지표 설명, 현장관찰, 인증관련 상담으로 이루어진다.
④ 조력일정은

9:00~9:30	현장도착, 조력일정논의, 현장관찰 시작
2:30~3:30	교사회 면담
6:00	현장관찰 마무리
7:00	이사회 면담

* 위의 일정은 어린이집의 하루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Ⅲ. 3단계 : 현장실사

자체점검보고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현장실사단이 파견된다. 현장실사는 현장실사자가 해당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지표에 따라 객관적으로 관찰, 보고하는 과정이다.

■ 현장실사 실시 전

○ 인증위원회에서는 현장실사단 2명을 선정한다.

○ 현장실사일은 인증위원회가 정하여 해당 어린이집에 공지한다.

○ 현장실사일에 어린이집은 특별한 행사가 없고, 현원 2/3이상이 출석 가능하도록 하여 원활한 현장실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이때 보육시설평가인증을 동시에 받고 있는 어린이집이라면, 평가인증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자체점검이 충분한지 조력 작업도 병행한다.

■ 현장실사 실시

○ 현장실사는 인증위원회에서 자격을 부여받은 현장실사단 2인이 파견된다.

○ 현장실사 시간

현장도착 예정시간 오전 8:30~9:30

실사종료 예정시간 오후 5:30~6:30

○ 실사 당일 어린이집에서는 인증지표와 관련하여 실사대상이 될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해 놓는다.

■ 현장실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실사단은 자체점검보고서 및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하루 일과와 교육활동 관찰, 면담 결과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이를 토대로 현장실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위원회에 제출한다.

Ⅳ. 4단계 : 인증심의 및 결정

현장실사가 완료되면 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지표를 기준으로 인증심의가 진행된다.

■ 재인증 심의

○ 인증위원회에서는 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지표를 기준으로 자체점검보고서, 제출서류, 실사보고서, 인증위원회 의견을 토대로 심의하여, 공동육아어린이집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사항과 권장사항에 대한 수정, 권고사항을 해당 어린이집에 문서로 제시한다.

○ 인증지표의 문구 중 “~해야만 한다.” 는 기본사항이며, “~바람직하다.”는 권장사항이다.

■ 재인증 최종결정

어린이집에서 수정,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조치를 취했음을 확인한 후 인증한다.

① 인증통과 : 지표의 필수적인 사항을 충족하고 권장사항을 충족한 경우

② 인증유보 : 지표의 필수사항이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충족하였더라도 권장사항이 미비된 경우

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의 필수요소

① 재정 투명성(월 재정 운영 공유)
② 부모참여 제도화(날적이, 방모임, 일일교사, 총회 등)
③ 교사 대 영유아의 비율
④ 영양과 급식 및 안전에 대한 기준
⑤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회원활동
⑥ 공동육아 교육과정 실현
⑦ 터전의 특성 살리기
⑧ 지역자원 활용(단오잔치, 지역 자원 활용 등)

■ 재인증 유보관리

○ 재인증이 유보되었을 경우, 유보사유에 대해 어린이집에 문건으로 통보하고, 유보사유를 수정한 이후 재심사하여 인증한다.

○ 유보에 대한 재심사 기간은 인증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어린이집에서 이를 수정보완하기 위하여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3) 인증시설 사후관리

■ 초기인증

○ 공동육아어린이집 초기인증 증서 및 현판을 발급한다.

○ 초기인증 통과시설은 인증의 유지 및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위해 매년 1회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작성 및 제출한다.

○ 초기인증 이후 3년이 되면 반드시 재인증에 참여한다.

■ 재인증

○ 공동육아어린이집 재인증 증서 및 현판을 발급한다.

○ 재인증 통과시설은 인증의 유지 및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위해 매년 1회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작성 및 제출한다.

■ 인증시설 지원

○ 방문지원 : 재인증 시설의 유지관리와 상담을 위해 방문 지원할 수 있다.

○ 인증관련 각종 정보를 온라인을 통하여 제공한다.

5. 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지침서의 기본방향과 구성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에서는 공동육아의 양적 확대에 따른 질적 제고를 위하여 지난 2000년부터 신설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공동육아의 질적 수준에 대한 일정한 기준과 구체적인 준거가 부족하여 여러 차원에서의 검토와 수정이 요구되어왔다. '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의 지표 및 지침서개발은 이러한 최근 몇 년간의 '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기준 재정비'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거쳐 2006년 구체적인 사업으로 계획했다.

때마침, 국가에서는 공보육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2005년부터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실시하고 있어, 부모보육협동시설인 공동육아어린이집도 이를 통과해야 한다. 이에 '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지침서'는 다음 두 가지 기본 방향에서 개발했다.

첫째, 기존의 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제를 토대로 하되, 지표구성을 가능한 '보육시설 평가인증'의 형식에 맞추었다. 예컨대 인증지표의 영역 구분은 공동육아의 고유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보육시설 평가인증'의 영역과 항목에 맞추어 구성하여 이후 국가의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준비하는데 혼란을 겪지 않도록 했다.

둘째, 새로 개원하는 어린이집의 초기인증 뿐만 아니라 기존의 공동육아어린이집에서도 재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과 준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즉, 인증이라는 일련의 과정은 지속적이고 객관적으로 터전을 점검하고 이를 개선하고자하는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터전환경 및 공동육아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 지침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개발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기존의 '공동육아 인증기준안'의 내용을 검토하여 미흡한 부분과 추가해야 할 내용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 조합 운영부문에 치우쳤던 인증내용에 대하여 교육부문의 항목을 늘려서 균형을 이루도록 계획했다.

두 번째 단계는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침서'와 '조력 프로그램'의 내용을 검토했다. 더불어, 공동육아어린이집 두 곳을 선정하여 2006년 '보육시설 평가인증'에 참여케 하고, 이를 조력지원하면서 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지표 및 기준에 대한 틀을 준비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 지표 시안을 마련했다. 이를 2006년 하반기에 인증 대기 중이었던 4곳의 어린이집 인증실사에 시범 적용했으며, 이를 통해 지표수정 및 보완을 거듭했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새로운 인증체계 및 지표와 이에 대한 해설을 붙인 '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지침서'를 마련하였다. 인증체계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공동육아와 공동

체교육 사무국의 자문을 거쳐 본 지침서를 발간했다.

2007년에 개발된 '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지침서'로 '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을 시행한지 3년이 흘렀고, 그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2010년 '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지침서' 개정 작업에서는 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지표 구성과 기준의 적절성 검토, 인증 절차 체계 보완, 사후 관리 방안 등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절차와 기본적인 방향을 바탕으로 인증지표는 크게 운영부문과 교육부문으로 구성되어있다. 운영부문은 운영기구, 조합원, 어린이집 종사자 채용과 관리, 재정 관리, 회원활동과 연대활동 등 5개 영역, 41개 항목으로 구성했고, 교육부문은 터전 환경, 터전 운영, 보·교육과정, 상호작용, 건강과 위생, 안전 등 6개 영역, 68개 항목으로 구성했다.

이와 더불어 각 지표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돕기 위하여 각 인증지표에 해설을 덧붙였는데 여기에는 필수사항과 권장사항이 다소 섞여서 서술되어 있다. 초기인증 시에는 필수사항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기준을 선택하도록 하고, 재인증 시에는 가능한 한 공동육아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수준을 제시하여, 필수사항은 물론 권장사항까지 갖추도록 한다. 지표를 수준별로 나누어 점수화하지 않은 것은 질적인 평가를 양화할 수 없다는 점 때문이며, 무엇보다도 각 터전의 여건에 따라 질적 수준을 점진적으로 향상시켜나가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예컨대 '~해야 한다.',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필수사항이고,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등은 권장사항이다.

본 인증지침서는 공동육아의 각 터전이 인증과정을 통하여 협동조합으로서의 운영 및 관리체계를 갖추고, 어린이집으로서의 보·교육의 질을 담보하고 향상시키도록 안내하고자 마련했다. 따라서 여기서 제시하는 기준과 준거들은 강제적인 지시나 평가의 척도가 아니라 조력과 지원의 의미가 더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6. 용어 해설

1) 영유아

어린이를 칭하는 용어로는 연령에 따라 영아, 유아, 아동 등 다양하다. 공동육아에서는 주로 아이 또는 아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왔다. 아이는 어른과 구별되는 용어로 보다 비공식적이고, 친근한 용어로 자주 사용하며, 아동은 초등학교 저학년을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정부의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36개월 미만의 어린이를 영아라 하며, 36개월 이상의 어린이는 유아라 한다. 본 지침서에서는 보육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

하는 영아와 유아를 포함하는 '영유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2) 보·교육

'보·교육'이라는 용어는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는 아니다. 공동육아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보육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보육이라는 용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지금까지 사용해왔다. 최근 공동육아 내부에서는 진정한 교육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소리가 높고, 때마침 제도권에서도 보육과 교육 제도의 이원화로 인한 소모적인 대립을 극복하고, 보육과 교육의 통합을 이루어내자는 취지에서 학계 일부를 중심으로 '보·교육'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제안하고 있다.

본 지침서에서는 이러한 공동육아 안팎의 상황 속에서 진정한 의미의 교육을 놓치지 않는 보육을 만들어가자는 취지를 강조하기 위해 '보·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II.
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지표

1. 운영부문

영역 1. 운영기구		방 법
가. 총회	1-1 정관 및 제반규정의 수립	문서
	1-2 총회 준비와 진행	문서,면담
나. 이사회	1-3 이사회의 구성과 역할	면담
	1-4 이사회의 진행과 기록	문서
	1-5 조합원과의 의사소통 및 의견수렴	문서,면담
	1-6 연간사업계획의 수립과 운영	문서
다. 교사회	1-7 교사회의 업무분담	문서
	1-8 교사회의의 진행과 기록	문서
	1-9 교사회와 부모조합원 간의 의사소통	문서,면담

영역 2. 조합원		방 법
가. 조합원 현황과 모집	2-1 조합의 규모와 충원	문서
	2-2 터전에 대한 정보안내	문서
	2-3 조합 가입절차	문서
	2-4 대기 조합원 관리	문서
나. 조합원교육 및 활동	2-5 조합원교육 계획 및 실행	문서
	2-6 신입조합원교육	문서
	2-7 조합원 간의 교류 기회 제공	면담
	2-8 부모참여	문서

영역 3. 어린이집 종사자 채용과 관리		방 법
가. 종사자 현황 및 채용	3-1 종사자 현황	문서
	3-2 종사자의 자격조건	문서
	3-3 종사자 채용절차	문서
	3-4 채용 및 인사 관련 문서	문서
나. 종사자 복지	3-5 근로계약서	문서
	3-6 인사규정 및 급여규정	문서
	3-7 종사자 사회보험 가입	문서

영역 3. 어린이집 종사자 채용과 관리		방 법
다. 종사자 교육	3-8 신입 종사자 교육	문서
	3-9 현직 종사자 교육	문서

영역 4. 재정 관리		방 법
가. 보육시설 운영조건	4-1 보육시설 종류	문서
	4-2 임대 및 매입 조건	문서
	4-3 보험	문서
나. 조합 재정 관리	4-4 출자금	문서
	4-5 가입비	문서
	4-6 조합비	문서
다. 어린이집 재정 관리	4-7 보육료	문서
라. 예·결산	4-8 예산	문서
	4-9 결산	문서
	4-10 급여	문서
마. 재정문서	4-11 재정문서 관리	문서,관찰

영역 5. 회원활동과 연대활동		방 법
가. 회원활동	5-1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회원활동	면담
나. 연대활동	5-2 공동육아협동조합간의 연대	면담
	5-3 지역사회와의 연대활동	면담,문서
	5-4 교사회의 연대활동	면담,문서

2. 교육부문

영역 1. 터전 환경		방 법
가. 터전환경	1-1 마당과 놀이시설	관찰
	1-2 나들이 장소	관찰, 면담
	1-3 텃밭	관찰, 면담
	1-4 채광과 조명	관찰
	1-5 방의 배치	관찰
	1-6 영유아의 휴식공간	관찰
	1-7 교사를 위한 공간	관찰
	1-8 비품과 활동자료의 보관 장소	관찰, 문서
	1-9 기저귀 갈기를 위한 장소	관찰
나. 보·교육활동 자료	1-10 언어활동자료	관찰
	1-11 탐구활동자료	관찰
	1-12 표현놀이 자료	관찰
	1-13 역할 및 쌓기놀이 자료	관찰
	1-14 전통놀이자료	관찰

영역 2. 터전 운영	방 법
2-1 방 구성	문서
2-2 신입 영유아의 적응절차	문서
2-3 영유아에 대한 문서관리	문서

영역 3. 보·교육과정		방 법
가. 보·교육활동의 계획 및 구성	3-1 보·교육계획안의 수립	문서
	3-2 보·교육활동 계획의 균형	문서
	3-3 보·교육활동의 평가	문서
	3-4 공동체교육	문서
	3-5 생태교육	문서
	3-6 표현교육	문서
	3-7 생활문화교육	문서

영역 3. 보·교육과정			방 법
가. 보·교육활동의 계획 및 구성		3-8 기본생활습관교육	문서
		3-9 장애영유아 통합교육	문서
나. 보·교육 활동의 실행	나-1 하루일과의 구성과 흐름	3-10 등원 및 귀가	관찰
		3-11 아침열기	관찰
		3-12 나들이	관찰,면담
		3-13 점심 및 간식	관찰
		3-14 낮잠 준비 및 낮잠	관찰,면담
		3-15 오후활동	관찰,면담
	나-2 자유놀이	3-16 언어놀이	관찰
		3-17 역할 및 쌓기놀이	관찰
		3-18 수작업 놀이	관찰
		3-19 표현놀이	관찰

영역 4. 상호작용	방 법
4-1 영유아에 대한 평등한 대우	관찰
4-2 영유아의 요구와 질문에 대한 반응	관찰
4-3 영유아를 존중하는 말과 행동	관찰
4-4 긍정적인 방법의 행동 지도	관찰
4-5 영유아 간 긍정적 상호작용의 격려	관찰
4-6 영유아 놀이에의 교사 참여	관찰
4-7 영유아의 부정적 정서 수용	관찰
4-8 영유아 간의 다툼이나 문제 상황 개입	관찰

영역 5. 건강과 위생		방 법
가. 청결과 위생	5-1 실내외 공간의 청결 유지	관찰,문서
	5-2 실내 환기와 온도 및 습도의 조절	관찰
	5-3 화장실과 세면장의 청결유지	관찰,문서
	5-4 주방과 식자재의 위생적 관리	관찰,문서
	5-5 마실 물과 물 컵의 관리	관찰
	5-6 교사와 영유아의 손 씻기	관찰

영역 5. 건강과 위생		방 법
가. 청결과 위생	5-7 개별 침구의 사용과 관리	관찰
	5-8 놀잇감의 청결	관찰
나. 건강과 영양	5-9 기본적인 건강관리 지도	문서
	5-10 전염성 질환에 대한 예방 및 관리대책	문서
	5-11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에 대한 보호	문서
	5-12 영유아와 종사자의 건강관리	문서
	5-13 영유아를 위한 먹거리	관찰,문서

영역 6. 안전		방 법
가. 실내외 안전관리	6-1 실외시설의 안전관리	관찰,문서
	6-2 실내시설의 안전관리	관찰,문서
	6-3 각방의 실내설비와 놀잇감의 안전관리	관찰,문서
	6-4 위험한 물건의 보관	관찰
나. 보호와 대처방안	6-5 영유아에 대한 성인의 보호	관찰,문서
	6-6 영유아의 인계과정	관찰,문서
	6-7 나들이 안전관리	관찰
	6-8 나들이 차량운행	관찰,면담
	6-9 상해보험 가입 및 공지	문서
	6-10 비상사태를 대비한 시설설비와 대처방안	관찰,문서
	6-11 안전교육과 정기적인 소방교육	문서

II.
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지표 해설

1. 운영부문

[영역 1] 운영기구

공동육아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적인 조직체로서의 운영기구를 갖추어 상호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공동육아 철학이 반영되어야 한다. 대표적인 운영기구로는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 조합 운영 전반의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집행하는 '이사회', 그리고 터전의 보·교육 운영을 담당하는 '교사회'가 있다.

공동육아에서는 일반적으로 조합운영과 터전운영을 분리하여 운영하는데, 이는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이다. 조합운영은 이사회를 주축으로 연간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각 이사들의 역할분담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구성된 조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 안정화, 조합원 관리, 정부지원체계 확보 등에 주력한다. 터전운영은 교사회를 중심으로 어린이집 일과와 터전환경 등 보·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교사들의 역할분담을 통해 이루어진다. 조합의 전체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나 공유해야할 사항은 총회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가. 총회

1-1	정관 및 제반 규정의 수립
	정관 및 제반 규정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행한다.

공동육아협동조합은 조합의 정관, 운영규정, 인사규정, 급여규정 등을 조합의 설립목적과 사업내용에 맞게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각 규정에는 공동육아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갈등을 방지하는 규약들을 명시하는데, 여기에는 공동육아 철학을 바탕으로 한 일정한 기준과 준거가 분명해야 한다.

예를 들면, 각 운영기구의 역할과 의무,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 장애영유아 통합교육, 부모참여(아마)제도에 대한 규정을 각 터전의 실정에 맞게 마련하되, 공동육아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립해야 한다. 또한 정관 및 제반 규정들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터전운영에 잘 반영되고 있는지 검토하여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총회를 거쳐 현행대로 개정해야 한다. 그 외, 정관이나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1-2	총회 준비와 진행
	총회를 위한 준비와 절차가 마련되어있으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지하고 문서로 보관한다.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는 조합의 해산과 합병·분할과 같은 조합의 운명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정관의 개정, 부동산의 취득 · 처분 등 조합의 근간이 되는 원칙과 재산문제에 관한 사항, 원장의 임명과 해임에 대한 결정, 이사장과 이사, 감사의 선출과 같은 주요 인사사항, 출자금·가입비·보육료·조합비에 대한 결정, 연간 사업계획과 예산 결산의 승인 등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자리이다.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성되는데, 정기총회는 재정연도가 끝나고 3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일반적으로 정기총회에서는 지난해 사업평가와 신년도 사업계획안 인준이 이루어진다. 즉, 이사회, 교사회, 각 소위별 평가와 계획이 발표된다. 임시총회는 사안에 따라 총회 의결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발의에 의해 실시되는데, 바람직한 조합 운영을 위해서 이사회는 회기 중간에 임시총회를 통해 1년 사업계획에 대한 중간점검을 하는 것이 좋다.

총회는 조합의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 조합원의 수가 20가구 미만이거나, 초기 조합의 경우에는 조합 안정화를 위해, 매월 또는 격월로 총회를 열어 전체 결의 수준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공동육아에 대한 이해를 넓힐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의 참여의식과 문제의식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총회는 전 조합원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것이니만큼 총회를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 예컨대, 논의해야할 안건을 사전에 공지하여 내용을 숙지하고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제안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진행 일정을 여유 있게 잡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세심한 사전 준비는 보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지만, 조합원의 총의를 모으는 과정자체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총회 후에는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조합원들은 회의록을 확인하여 빠진 것이나 정정할 내용이 있으면 이사회에 요청한다. 수정 요청이 없으면 이사회는 회의록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고 최종 회의록에 의장, 이사, 서기가 서명하여 보관한다.

나. 이사회

1-3	이사회의 구성과 역할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각 부서별 역할과 업무분담이 명확하게 이루어진다.

이사회는 총회에서 결정한 조합의 사업을 실행하며, 조합운영 전반의 중요사항을 논의,

결정, 집행하며, 인사와 재정 책임을 지는 핵심 단위로서 조합운영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이사회의 결의사항은 집행력을 가지므로 사전에 충분히 조합원들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결정된 사항은 집행되어야한다. 조합 운영은 책임이 따르는 일이니만큼 반드시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사회 구성원은 공적 조직의 책임자로서 자기정체감을 확실히 해야 한다.

이사회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조합의 성패가 좌우될 만큼 이사회의 구성은 매우 중요하다. 공적인 운영을 처음 해보는 조합원들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며, 때로는 운영상의 손실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공적운영의 경험이 있는 조합원을 중심으로 이사진을 구성하고, 다른 조합원들은 조합운영에 참여해 가면서 운영주체로 역량을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합의 역량을 키워가려는 자발적인 노력이 병행되지 않은 채, 무조건 순번제로 이사직을 맡기는 것은 또 다른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다.

이사회 구성은 조합의 크기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이사장, 운영이사, 재정이사, 시설이사, 교육이사, 홍보이사 등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이사로 원장이나 대표교사가 참여한다. 조합 사정에 따라서 조직 · 생활문화나 대외협력 등 1~2명의 이사를 추가할 수 있다. 이사의 수가 너무 많으면 의견통일이 어렵고 운영이 방만해지므로 이사 수를 최소화하여 밀도 있게 운영하는 것이 좋다. 해당 이사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일을 분담하거나, 특위를 구성하여 당면한 현안을 해결해나갈 수 있다. 각 이사별 역할과 업무분담이 명확하게 이루어지도록 이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1-4	**이사회의 진행과 기록**
	이사회의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지하고 문서로 보관한다.

이사회는 보통 매월 정기이사회와 사안별 임시이사회로 운영한다. 효율적인 이사회의 진행을 위해서는 안건을 사전에 공지하여 소위별 보고서를 미리 작성해오거나 논의자료를 준비해 오도록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수렴해온 의견에 대해서는 개인의견이 아닌 각 소위의 대표로서 발표해야 한다. 회의 진행은 보통 원장이나 대표교사가 교육활동과 교사회 관련 내용을 먼저 보고하고, 각 소위별 보고 및 안건토의를 한다.

이사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이사회 회의록을 통해 정리해두고, 결정된 사안은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조합원들이 이사회에서의 논의와 결정사항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이사회는 정관과 규정을 숙지하여, 매 결정사안에 대해 번복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조합 운영의 책임단위로서의 위상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1-5	조합원들과의 의사소통 및 의견수렴
	조합원과의 의사소통 및 의견수렴의 절차와 구조를 마련하고 있다.

이사회는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의사소통을 통한 운영기틀을 마련하여 항상 조합원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조합원들이 조합 운영과 터전생활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공동육아의 조합 운영은 이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 조합원들은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안의 논의과정을 알기 어렵고, 자신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결정에 따라야하는 조합원들은 조합 운영에서 배제되었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사회는 조합원과의 의사소통 절차 및 의견수렴 구조를 마련하여, 조합원들이 공적인 조직운영체계에 대한 인식을 갖고 조합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전체 조합원의 의견을 취합해야하는 안건은 먼저, 이사회에서 논의하여, 방모임이나 소위원회로 보내서 의견을 모으도록 한다. 이는 다시 방장모임에서 취합하거나 각 소위별 이사를 통해 이사회로 보고하도록 한다. 그 밖에 각 이사를 중심으로 조모임(소모임)을 꾸려 의견수렴의 공식통로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1-6	연간 사업계획의 수립과 운영
	이사회는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며, 기간별 사업을 평가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공동육아협동조합은 하나의 공적인 조직체로 합리적인 경영을 통해 확대 발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이사회에서는 1년 단위로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일상적인 사업영역과 사업확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구상하고 집행할 수 있어야한다. 특히 연간 사업계획을 토대로 한 체계적인 예산 수립과 집행은 재정 손실을 최소화하여 조합 운영의 안정과 발전을 가져온다.

조합의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먼저, 중장기 계획 속에서 한해의 목표를 세운다음, 한해의 목표에 따른 분야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사업계획의 수립과 진행 과정에서 고려할 점은 조합원의 고른 참여를 독려하기, 조합원들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계획을 세우기, 재정안정화를 꾀하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철하기 등이 있다.

이사회는 매년 사업계획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토대로 사업 실적을 축적하여 조합의 사업수행능력을 향상시켜 나가야한다. 이를 위해 각 이사들은 기간별 사업평가를 하고 방모임, 특위 또는 소위별 활동에 관한 평가도 취합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추인을 받는다. 일반적으로는 상 · 하반기 총회 때 중간점검 차원에서 사업평가를 하는 것이 좋으나, 적어도 년 1회 이상은 평가가 이루어져야한다.

다. 교사회

1-7	교사회의 업무분담
	교사회의 업무분담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하여 실행한다.

터전 운영이 보다 합리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교사회의 업무분담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문서화 되어 있어야하며, 각 업무에 대해 책임지고 관리하는 인력이 누구인지 모든 구성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해야 한다. 교사회의 업무분담을 위해서는 먼저 '교사 역할 나누기'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 그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정체성을 가져야 서로 협력하고 힘을 모으게 된다. 업무분담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차이를 줄여나가는 서로의 노력에서 교사 성장도 이루어진다.

공동육아어린이집에는 협업업무가 많고, 잡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용역을 두지 않기 때문에 터전 안팎으로 생기는 작은 일까지도 세밀하게 나누어 실행해야 한다. 따라서 교사들은 자기가 맡은 업무를 분명히 알아야하며, 공동업무로 인한 갈등이나 의사소통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문서화하여 실행해야 한다. 전체가 공동담임이라는 개념을 갖고 동료의 몫까지 함께 채워나간다는 상호 배려하는 마음과 융통성이 있어야한다.

행정, 터전정리와 관리, 교육활동 등 교사회의 업무분담은 내용에 따라 나누거나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좋으며, 교육활동을 진행할 때에는 교사의 전공이나 특기에 맞추어 역할을 분담하면 활동이 더욱 풍성해지고 교육적 효과도 크다.

1-8	교사회의의 진행과 기록
	정기적으로 교사회의를 진행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지한다.

교사회는 월별, 주간별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터전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안건을 논의하여 교사들이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사회의 회의체계가 잘 갖추어져야 교육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교육실행도 잘 이루어진다.

교사회의는 보통 아이들의 낮잠시간을 이용한 주 1~2회의 '낮 회의', 토요일 또는 야간시간을 이용한 월 1회의 '긴 회의', 그리고 상하반기 총회를 준비하는 6개월 또는 1년 단위의 '교육평가회의'가 있다.

회의내용으로는 교육활동의 계획 및 평가, 개별 영 · 유아의 특성에 대한 지도 방향, 개별 상담에 필요한 자료 취합, 역할분담에 대한 평가, 조합과의 의사소통 등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교사회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원장이나 대표교사가 회의내용을 미리 교

사들에게 알려서 각자 회의를 준비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다. 원장이나 대표교사 역시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가 효과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모든 회의는 회의록이 작성되어야하며, 개인에 대한 민감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지해야 한다.

공동육아의 회의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토론을 기본으로 하며, 결정은 다수결원칙보다는 합의점을 찾기 위해 서로를 이해하고 이해시키는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한다. 나아가, 효율성보다는 공동체성을, 의견 일치보다는 상호이해를 더욱 소중히 생각해야 한다.

1-9	교사회와 부모와의 의사소통
	공식적인 통로를 통하여 교사회와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교사회와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가능한 개별적인 의사전달보다는 이사회를 통한 공식적인 의사소통을 원칙으로 하며, 의사결정은 각 소위나 방모임, 총회를 거쳐 이루어지도록 한다. 교사와 부모 사이의 일상적인 의사소통 방법으로는 날적이가 있고, 정기적인 모임으로는 월 1회 방모임이 있으며, 년 1회 이상의 개별면담이 있다.

날적이는 교사와 부모가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 영유아에 관련된 문제를 신중하고 지속적으로 해결하는 통로가 된다. 날적이는 쓰기와 읽기를 통한 대화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자신을 성찰적으로 만나고 상대에 대해 깊이 이해하면서 상호주관적 관계를 갖게 된다. 공동육아 구성원들에게 날적이는 지나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고, 지금의 삶을 물어보게 하며 앞으로 어떻게 살지 길잡이가 되어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방모임은 터전 소식과 영유아들에 관한 궁금증을 풀고, 교육적인 제안과 토론을 하는 동시에 교사와 부모간의 이해와 친목을 다지는 자리이다. 방모임을 위해 교사회에서는 사전에 교육활동평가서와 계획서를 준비한다.

개별 면담은 영유아를 중심에 두고 교사와 부모가 생각을 맞춰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일반적으로 초기면담 시에는 부모가 아이에 대한 정보를 많이 줌으로써 내 아이의 이해를 돕는 기회가 되도록 하고, 후기면담 시에는 담임교사로부터 아이의 터전생활에 대한 태도와 관계 등 성정과정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연간 정기면담 외에 필요시에 수시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특히 신입 영유아는 적응을 돕기 위한 수시면담이 필요하다. 그 외 교육소위 모임 등 교육을 위한 다각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다.

공동육아에서는 영유아와 함께 부모와도 전면적인 관계를 맺으며 동반자로 지내게 된다. 그러나 관계를 중요시하다보면 자칫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열린 관계, 또는 신뢰관계로 오인될 수 있다. 사적인 친밀관계 자체가 관계의 건강성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교사는 부모와 공식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역 2] 조합원

공동육아협동조합의 조합원은 보육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모인 구성원으로서 일정금액을 출자하여 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조합원은 어린이집 운영의 주체로 참여하며 역할을 한다. 여기에는 정관에 따른 운영규정을 두어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어린이집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충원과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조합의 운영은 공동육아에 대한 의식적 공감, 자발적 참여, 잘 훈련된 민주적 역량에 따라 그 성패가 좌우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합원들 간의 인식의 편차를 좁히고 서로 상이한 견해나 이해를 조율해 나가기 위해서는 열린 소통과 참여구조 만들기, 체계적인 조합원교육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조합에 따라서는 교사조합원제도를 실시하여, 부모조합원과 교사조합원을 포괄해서 '조합원'이라고 지칭하나 본 지침서에서 조합원은 부모조합원으로 국한한다.

가. 조합원 현황과 모집

2-1	조합의 규모와 충원
	조합의 규모는 운영하기에 적당하며, 충원계획을 가지고 있다.

조합의 규모란 대체로 운영규모를 말하며, 공동육아협동조합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조합의 규모를 갖추어야 한다. 부모협동보육시설로 개원을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지자체의 인가기준에 맞게 운영의 규모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동육아협동조합은 최소한 15가구 이상이 되어야 개원할 수 있으며, 연령별 방구성과 전일교사대표체제 등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20가구 이상은 되어야 한다.

조합원의 부족은 어린이집 재정에 무리를 주고 조합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조합원의 충원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노력이 필요하다. 충원 계획은 우선 방별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고, 향후 3년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2	터전에 대한 정보 안내
	터전에 대한 정보 안내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터전에 대한 정보 안내는 간단한 자료집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공동육아어린

이집의 운영철학, 연혁, 운영형태, 방 구성 등에 대하여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의 홈페이지와 각 어린이집의 온라인을 활용한다. 그 외 방법으로 어린이집 홍보자료집, 공동육아 안내책자나 어린이집소식지, 신문광고 등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또 지역의 생활정보지나 지역신문, 유선방송에 협조를 구해서 공동육아를 홍보하거나 지역 내에서 설명회를 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2-3	조합 가입절차
	조합은 가입절차를 마련하여 조합원의 가입을 안내한다.

신규조합원이 전화 및 방문상담을 통하여 가입의사를 결정하면 조합원의 참여범위, 사전 참관제도, 이사진 면담 등을 절차에 따라서 안내해야 한다.

조합 가입절차로는 우선 예비조합원을 내방하게 하여 공동육아의 교육철학과 교육환경, 조합원의 참여범위,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관계 등을 설명하고 안내한다. 가입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참관을 통해 어린이집에서의 하루를 체험하도록 한다. 이러한 절차는 아이들의 모습과 교사들의 역할 및 다양한 관계 맺기를 경험하고, 공동육아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가입의사가 확정되면 조합 이사진과의 면담을 통하여 공동육아협동조합원으로서의 역할과 권리 및 의무를 상세히 안내한다.

2-4	대기 조합원 관리
	대기 조합원 명단을 문서화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조합원 모집은 공동육아 이념과 교육철학에 동의하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며, 조합원 가입절차 및 모집은 정관 및 운영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대기 조합원의 연락처, 영유아 인적사항, 가입 및 등원 희망연월일 등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대기 조합원이 미 확보된 경우에는 지속적인 조합원 모집을 위한 홍보활동을 해 나간다. 대기 조합원이 일정 정도 인원이 되면 어린이집 행사에 초대를 하거나 설명회를 개최한다. 조합은 대기 조합원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어린이집 행사에 초대하기, 소식지 보내주기 등을 통하여 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관리한다.

대기 조합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자료는 모두 문서화하고 대기일정에 따라 등원일정을 안내한다.

나. 조합원교육 및 활동

2-5	조합원교육 계획 및 실행
	연 2회 이상의 정기적인 조합원의 교육 계획을 마련하여 실행한다.

조합원교육은 공동육아의 이념과 철학을 실현함과 동시에 조합 운영의 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사회에서는 조합 운영의 중요한 과제로 매년 2회 이상의 조합원교육 계획을 세워야한다. 또한 법인이 주최하는 공동육아 입문과정, 부모교육에 참여하여 공동육아 운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 조합들과 연대하여 공동 부모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좋다. 교육소위에서는 조합원교육을 중점적으로 진행하는 역할을 하는데, 교육내용을 정하기 위해 사전에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한다.

조합원교육은 설립시기와 조합의 상황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설립 초기에는 조합이 운영되기 위한 기초적 수준에서 조합원 간의 인식 통일을 위한 소양교육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공동육아의 이념과 교육철학, 협동조합의 운영원리, 장애영유아 통합교육 등의 주제가 다루어질 수 있다.

안정기에는 보다 심화된 내용으로 조합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지역사회에 뿌리 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조합원의 역할, 조합의 민주적 의견수렴구조와 방법, 부모참여(아마)활동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 원활한 조합 운영에 대한 주제, 통합교육, 특기교육 등 영유아교육에 대한 주제가 다루어질 수 있다.

조합의 구성원이 바뀌고, 세대가 교체되는 시기에는 조합의 세대가 바뀌어도 지켜야 할 원칙과 변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하며, 동시에 신입조합원 교육에 공을 들여야 한다. 예를 들어, 공동육아의 이념과 철학, 아동관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한국사회 교육현실, 아동현실 등 넓은 시각에서 교육을 바라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가 다루어질 수 있다.

재구성기에는 조합의 장기적인 전망을 내오고 조합의 전통을 재구성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조합의 역사, 선배들의 실패와 성공, 지역공동체의 경험과 역사, 마을만들기 등의 주제가 다루어질 수 있으며, 졸업조합원을 적극 활용하는 등 부모와 교사가 주체가 되어 스스로 부모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2-6	신입조합원교육
	신입조합원을 위한 교육 계획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신입조합원에 대한 교육은 계획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적절한 지원과 안내가 필요하다. 또한 법인 주최 전체신입조합원교육, 공동육아 입문과정 등에 참여를 유도

하여 공동육아운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입조합원교육은 기존의 조합원들과 원만하게 융화되고 서로간의 인식 차이를 좁히고 공동육아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것이므로 매우 중요하다. 신입조합원이 조합원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기존조합원이 이끌어주어야 조합을 건강하게 운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입조합원과 기존조합원이 '짝손제'나 '멘토'를 정하여 터전생활을 안내해주거나 마실과 품앗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적응을 도와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신입조합원교육 내용으로는 우선 공동육아의 이념 및 철학과 공동체로서의 연대감 형성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다음으로 공동육아 교육내용과 부모참여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며, 조합의 일원으로서의 역할과 권리 및 의무 등을 다루어야 한다.

2-7	조합원 간의 교류 기회 제공
	조합원 간의 다양한 교류 기회를 마련한다.

공동육아운동은 육아공동체를 출발점으로 사라져가는 지역공동체를 되살리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만큼 공식적 운영체계와는 별개로 조합원간의 친분을 돈독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갖는 것이 좋다. 조합원 간의 단합과 친목은 조합의 결속을 강화시키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하여 친목과 화합을 다지기 위한 조합야유회, 체육대회, 가족여행, 가족 등반모임 등과 스터디 모임, 교육지원 모임(놀잇감 만들기, 인형 만들기) 등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2-8	부모참여
	조합원들은 부모로서 어린이집의 운영 및 교육 활동에 참여한다.

공동육아 조합원들은 어린이집의 운영 및 교육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함께 의무를 가진다. 어린이집에서의 부모참여는 이사회 참여, 소위활동, 방모임, 부모일일교사, 터전시설 개보수 활동, 대청소 및 소청소, 차량나들이 지원 및 보조교사 활동 등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공동육아에서 부모참여는 가족 이기주의와 아이들을 통한 경쟁의 사회적 관성을 극복한 사회적 부모로서 공동체적이고 주체적인 참여를 뜻한다. 즉, 부모가 어린이집 운영과 육아에 대해 공동의 책임을 지고 협력하는 것으로 보·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과정이나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다. 보다 적극적인 부모참여로는 보육에 관한 사회적 담론과 합의를 형성하는데 참여하거나, 지역자치단체와 국가의 보육정책 수립에 참여하게 된다. 내 아이만의 부모가 아니라 터전의 모든 아이들의 부모가 되자는 의미로 아빠와 엄마를 줄인 '아마'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한다.

[영역 3] 어린이집 종사자 채용과 관리

종사자라 함은 각 단위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시설장, 교사와 취사부, 그 외 계약직 종사자를 말한다. 공동육아에서는 종사자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수평적 관계를 지향하나 역할에 따른 관계의 질서를 따르는 것은 필요하며, 종사자의 채용과 관리는 터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가. 종사자 채용 및 현황

3-1	종사자 현황
	어린이집 규모에 맞게 종사자를 채용하여 교사회를 구성한다.

어린이집은 보육시설로서 법적 인가기준에 따라 정해진 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공동육아에서는 법적 인가기준보다도 교사 대 아동비율을 낮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영유아 수에 비하여 교사수가 많은 편이다. 이러한 공동육아어린이집의 상황은 비교적 높은 인건비로 인한 조합의 재정 부담을 야기하기도 하므로 터전의 재정 상황에 무리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교사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다.

3-2	종사자의 자격조건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의 철학에 동의하며 공동육아 교사 성장체계에 따른 기초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다.

공동육아어린이집의 종사자는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의 철학에 동의하며, 육아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주체적으로 참여하고자하는 사람을 우선 채용한다. 또한 공동육아에 대한 이해의 정도와 교사로서의 자질, 변화하려는 의지, 아동에 대한 이해와 열린 마음, 긍정적인 교육관 등을 채용기준으로 보아야한다.

채용된 교사가 보육교사 및 유치원교사 자격증 소지자라 할지라도 공동육아 교사 성장체계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내에 [현장학교 기초과정](1단계)을 반드시 마치도록 해야 한다. 공동육아 초기에는 아동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건강한 아동관을 갖은 자이면 채용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부모협동보육시설로서 인가기준에 적합한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므로 교사채용 시에는 이를 참고해야 한다. 만일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 때에는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서 자격을 갖추도록 독려해야 한다.

3-3	종사자 채용절차
	종사자 채용은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개적으로 채용한다.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의 추천을 받거나 관련 사이트 및 어린이집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여 공개 모집을 하며 인사위원회의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인사위원회를 두는 것은 공개심사와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함이며, 반드시 부모, 교사 동수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사위원회는 어린이집의 종사자에 대한 인사 상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고, 인사규정의 개정, 폐지, 종사자 정원의 결정 및 증감, 상벌사항, 기타 인사 관련 중요사항으로 회의의 소집,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이사회 운영방식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심사는 일차적으로 서류심사를 한다.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와 자기소개서를 참고하여 면접을 통해 교사의 전문성과 더불어 공동육아에 대한 이해와 품성, 교사로서의 자질, 변화하려는 의지, 긍정적 사고여부, 아동에 대한 이해 등을 중심으로 전망을 확인한다. 면접 시에는 다수의 면접관이 참여하므로 면접을 하는 교사가 중압감을 가질 수 있으므로 편안하고 평등한 분위기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교사를 채용한 후에는 빠른 시일 내에 관할관청에 임면보고를 해야 한다.

3-4	채용 및 인사 관련 문서
	채용서류 및 인사 관련 문서를 구비하여 보관한다.

종사자로 채용하기를 결정한 경우에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최종학력졸업증서, 인사기록부, 자격증사본, 주민등록등본, 채용신체검사서, 성범죄조회서 등의 채용과 관련된 문서를 구비하여 어린이집에서 보관해야 한다. 또한 교사가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동안 공동육아 교사교육, 보수교육 및 승급교육, 건강검진 그 밖의 신상 변동사항 등을 인사기록부에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한다.

채용한 교사는 인사기록부 사본, 자격증 사본, 채용신체검사서 사본, 성범죄경력조회 결과서를 첨부하여 임면보고를 한다. 보육교사 승급교육과 경력기록도 각 지자체 관할구청에서 관리하므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교사 개인의 경력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

나. 종사자 복지

3-5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근로계약서는 근무조건을 명시한 것으로서, 특히 교사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근로계약서는 각 어린이집의 인사규정과 급여규정의 근무조건, 고용조건, 임금조건 등에 준하여 작성한다. 이 때 2부를 작성하여 어린이집과 교사 본인이 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정규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자동으로 승계되는 것이 상례이나, 매년 새로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6	인사 규정과 급여규정
	인사규정과 급여규정을 고지하고 준수한다.

각 어린이집은 현실적 여건과 '공동육아어린이집 교사 노동기준안'을 참고하여 인사규정 및 급여규정을 마련하고 종사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인사규정에는 인사규정의 총칙과 인사위원회, 임면 및 보직과 복무, 교사교육, 휴직 및 병가, 퇴직, 표창과 징계, 해고 등을 명시해야 한다. 급여규정에는 급여계산과 지급방법,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을 명시해야 한다.

인사관리는 이러한 규정을 바탕으로 해야 하며, 규정을 제정할 때는 공동육아어린이집 교사 노동기준안을 참고하거나, 비슷한 운영규모의 규정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같은 지역 내에서, 또는 비슷한 운영규모 내에서 근무여건과 급여조건의 차이가 크면 각 어린이집과 교사회 내에서 위화감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입교사 채용 시에는 반드시 인사규정과 급여규정을 고지해야 한다. 이외에도 수습기간 안내, 퇴직 시 2개월 전 사전고지의무 등을 정확하게 고지하고 숙지하도록 하여 교사회의 이직 등 변동사항 시에 혼란이나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한다.

3-7	종사자 사회보험 가입
	종사자는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한다.

어린이집 종사자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 종사자보험으로 의무 가입해야 한다. 4대 보험에 모두 가입해야만 교사 임면보고도 할 수 있고,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교사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교사처우개선비와 같은 각종 정부

보조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어린이집에서 아동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들고 있는 상해보험에 함께 가입할 수 있다.

다. 종사자 교육

3-8	신입 종사자 교육
	신입 종사자 교육을 위한 내용과 절차를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실행한다.

신입교사의 경우에도 공동육아를 처음 접한 교사와 공동육아 경력교사로 나눌 수 있다. 공동육아를 처음 접한 교사는 빠른 시일 내에 공동육아교사 자격과정을 이수하도록 교사회와 이사회가 배려를 해주어야 한다. 공동육아 경력교사라 하더라도 각 어린이집마다 문화와 정서가 조금씩 다르므로 해당 어린이집의 교사교육이 필요하며, 교사회 내에서의 자체교육이 바람직하다.

신입교사교육은 일반적으로 내 · 외부 사전 연수, 신입교사 오리엔테이션, 교사회 자체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사전연수는 현장실습을 의미하는데 내부와 외부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 순서는 어린이집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내부연수를 먼저 진행할 경우에는 자체 교사회를 통해 공동육아의 교육철학과 내용에 대한 이해를 먼저 공유하고, 사전실습을 받게 되므로 어린이집 적응에 도움이 된다. 외부연수는 다른 공동육아어린이집을 통해 이루어지며 최소 일주일 이상의 실습기간을 통하여 교육적 흐름을 이해하도록 한다. 터전의 여건이 허락하는 한 근무 시점보다 한 달 정도 미리 채용하여 내 · 외부 연수를 충분히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입교사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은 신입교사교육계획안을 작성하여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교사회에서 실시하는 신입교사오리엔테이션과 별도로 교사회 자체 교육을 실시하여 각 어린이집의 교육철학 및 운영방침, 교육내용 및 활동, 직무에 대한 설명, 역할분담 등을 다루어야 한다. 이외에도 조합 정관 및 제 규정, 고용과 관련된 조건 및 용어들에 대한 설명, 불만이나 갈등해결을 위한 적절한 처리절차와 방법을, 전체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교사회 조직체를 숙지하도록 한다. 자체교육은 교사회의 구성원들이 역할을 나누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입교사는 연수기간을 포함한 3개월 전후의 수습기간을 가지며 타 공동육아어린이집 경력교사 또한 적응평가기간을 갖는다. 공동육아어린이집의 수습기간은 임용과 해임의 기회가 아니라, 각자의 교육관이나 교육철학을 확인하고 서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기회로 여긴다. 수습기간은 각 어린이집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공동육아 경험이 있는 경력교

사 경우 탄력적으로 적응평가기간을 갖는다.

수습기간을 마친 후에는 수습평가나 적응평가를 해야 한다. 신입교사에 대한 교사회의 수습과정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각 어린이집의 사정에 따라서 달리 할 수 있으나, 이사회, 교사회의 평가나 본인의 평가를 통해서 공동육아운동을 실현하고, 공동체 일원임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공동육아 교사의 수습교사 평가 틀에 맞추어서 본인의 평가를 하고, 교사회의 평가, 조합 평가를 한 뒤에 인사위원회에 전달한다. 인사위원회에서는 각 단위의 평가를 취합하여 최종 평가를 한 뒤 본인에게 전달하여 수습교사 평가를 마무리 한다. 평가의 내용에는 교사의 근태, 성장하는 교사로서의 가능성, 성실성 및 공동육아 교사로서의 전망과 비전을 포함해야 한다.

3-9	현직 종사자 교육
	현직 종사자들을 위한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한다.

현직 교사교육은 연초 교사회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해야 하며, 교육을 받은 후에는 교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공유하고, 조합과도 공유한다.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에는 다양한 현직 교사교육의 기회가 마련되어 있다. 현직교육은 모든 교사가 참여하는 필수교육과 연차와 주제에 따라 이루어지는 선택교육이 있다. 공동육아 교사교육은 '공동육아 교사성장체계'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교사의 자율적 성장을 독려하는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체계모형이다.

공동육아 교사에게 연차별로 필요한 단계별 교사성장체계(현장학교)는 필수교육으로 현장학교[기초과정](1단계), [교육실제과정](2단계), [심화과정](3단계), [전문과정](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역할에 따른 필수 직무교육으로는 신입교사교육, 영양교사교육, 대표교사교육이 있다. 신입교사교육은 어린이집 교사회에서 계획을 세워 진행하여야 하고, 지역단위교사회에서도 신입교사교육이 필요하다.

여름 · 겨울교사대회는 교육을 통해 성장하고, 교육활동을 나누며, 연대하고 대동하는 대회로 각 어린이집에서 교육시간과 교육비를 보장해주며 모든 공동육아 교사가 의무로 참여해야 한다.

또한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에서 상시적으로 개설하는 재교육과정(단기교육, 특강), 대동놀이교육, 장애아통합교사교육과 모둠활동(세시와절기, 놀이와노래, 생태나들이, 통합교사 모둠 등), 교사회에서 주관하는 지역교사회의, 외부교육 등 다양한 재교육 참여기회를 갖는다. 보육교사로서 대표적인 외부교육은 보수교육으로 직능별(영아반, 방과후, 통합교육) 교육이나 년차에 따른 승급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외에도 교사회에서는 자체연수 및 재교육을 계획할 수 있다. 자체 연수는 대체로 매년, 매월의 교육평가를 통하여 교사회가 필요한 교육내용을 정하여 자체연수(토론 및 세미나, 다른 공동육아 어린이집 연수방문 등) 및 외부연수를 받을 수도 있다.

[영역 4] 재정 관리

공동육아어린이집은 부모협동보육시설로 인가를 받아 운영하도록 한다. 보육시설 인가조건에 맞추어 터전과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공동육아어린이집에 부모와 교사의 재생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의 적절한 회계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공동육아어린이집의 재정 관리는 조합 운영비와 어린이집 운영비로 나뉜다. 형식으로 보면, 공동육아협동조합이 공동육아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재정도 나뉘어서 관리된다. 조합 운영비 항목에서는 출자금, 가입비, 조합비를 관리하며, 어린이집 운영비 항목에서는 보육료를 관리한다.

모든 보육시설은 '보육시설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재정 관리를 해야 하는데, 공동육아어린이집의 경우는 어린이집 운영비 항목을 관리할 때 적용된다. 아직까지 조합 운영비는 정부의 관리대상이 아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너무 과장하거나 부족하지 않도록 책정하고, 지출은 예산에 따라 지출하여야 한다. 결산을 할 때는 년도 구분을 명확히 하여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예결산 내역을 반드시 공지하여 모든 사람들이 조합과 어린이집의 재정 상태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한다.

교사 급여는 되도록 '공동육아교사노동기준안'을 기준으로 하고, 인근 지역과 너무 차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좋다.

가. 보육시설 운영조건

4-1	보육시설 종류
	부모협동보육시설로 인가받는다.

공동육아어린이집은 인가를 신청할 때 협동조합 형식의 보육시설인 '부모협동보육시설'로 인가받게 된다. 부모협동보육시설은 인원수에 따라 20인 이하 시설과 20인 이상 시설로 나뉘며, 인원수에 따라 건물의 용도변경 여부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어린이집 건물을 선정할 때 이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한다. 신규설치(변경인가) 전에 해당 시·군·구청의 [보육시설 설치 사전상담제]를 통하여 제반 안내를 받는다.

4-2	임대 및 매입 조건
	임대 및 매입 조건은 지역실정과 조합실정에 비교해서 적절하다.

공동육아어린이집은 자연친화적인 터전 조건을 중요시하다보니 낡고 허름하고 후미진 곳에 있는 건물을 임대하거나 매입하기 쉽다. 그러나 교사와 부모조합원의 접근 용이성, 영유아들의 안전한 생활, 지나치게 높지 않은 임대료, 매입 후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저렴한 임대료나 매입비에 마당이 넓고 산과 가까이 있다 하더라도 교사의 출퇴근이나 부모의 등하원이 어렵다면 적당한 터전이라 하기 어렵다. 반대로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에서 가깝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임대료나 매입비가 높으면 재정 부담으로 운영의 안정성을 해치게 되므로 적당하지 않다.

4-3	보험
	배상, 화재, 상해보험에 모두 가입한다.

보육시설은 의무적으로 배상보험, 화재보험, 상해보험, 종사자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있다. 배상보험이나 화재보험은 어린이집에 등원한 이후 영유아가 상해를 당했을 경우 어린이집에서 감당하는 보험이다. 상해보험은 등원 전에 부모가 가입했는지 어린이집에서 미리 확인해야 한다.

나. 조합 재정 관리

4-4	출자금
	출자금은 지역실정과 터전 비용에 맞게 합리적으로 책정한다.

어린이집 개원을 서두르다보면 조합의 규모를 장기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채 터전을 임대하거나 선정하기 쉽다. 공동육아어린이집은 앞으로 가입하게 될 예상수요를 적절하게 예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고려하여 조합 규모를 결정하고, 그에 적당한 터전 크기를 선정하며, 적절한 출자금액을 책정할 수 있어야 한다.

출자금은 적을수록 좋지만 이를 위해 영유아들이 생활하기 불편한 조건의 터전을 임대하거나 선정하지는 말아야 한다. 반대로 미충원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계약을 진행하다가 나중에 출자금이 터무니없이 높거나 인근지역의 타 공동육아어린이집보다 높아져서도 안 된다.

또한, 터전 임대료에 맞추어 출자금액을 책정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1억의 임대조건에 25가구의 규모를 예상한다면, 출자금은 400만원이 아니라 넉넉하게 450만원 정도로 책정하

여 조합원들의 가입탈퇴과정에서 출자금 운용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터전 매입 시에는 출자금이 터무니없이 높아지지 않도록 하며, 설립기금 등 조합의 공적 기금 제도를 마련하고 장단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워 지역의 어린이집으로서 공공성을 높여 갈 수 있도록 한다.

4-5	가입비
	가입비는 시설 규모, 사용내역에 맞게 책정한다.

가입비는 어린이집 개원시 시설비 용도로 쓰인다. 가입비를 운영 적자비용에 충당하거나 다른 용도로 유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입비는 시설비 용도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독립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또한 시설비는 예상되는 내용보다는 갑작스럽게 지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유지시키는 게 좋다.

개원 초기에는 새롭게 갖추어야 할 시설 설비와 비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입비가 높을 수 있다. 그러나 터전이 아주 열악한 조건이 아닌 한 해가 갈수록 시설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때에는 가입비 금액을 감액하여 새로 가입하는 조합원들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4-6	조합비
	조합비는 공동육아협동조합을 운영하는데 적절한 금액으로 책정한다.

조합비는 보육료와 구분하여 공동육아협동조합의 일상적인 운영비에 쓰인다. 소요내역은 총회나 조합원교육, 모꼬지 등 조합 전체 활동과 이사회 활동, 경조사비, 어린이집 운영지원비 등이다. 조합비로 지출할 내역과 보육료로 지출할 내역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지출하도록 한다.

다. 어린이집 재정 관리

4-7	보육료
	보육료 금액은 정부가 제시하는 기준금액 이하로 책정하고, 보육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정리한다.

어린이집은 보육료 수입으로 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출하게 된다. 공동육아어린이집은 보육료 자율화시설이 아니므로 매년 정부 또는 지자체가 제시하는 보육료 상한금액을 고려하여 기준금액 이하로 보육료를 책정해야 한다.

모든 보육시설은 '보육시설재무회계규칙'에 의해 재정 관리를 하며, 어린이집 운영비 수입과 지출내역을 이에 따라 정리해야 한다.

공동육아어린이집의 재정 관리는 재정이사와 원장이나 대표교사가 분담해야 하므로, 어린이집에서 직접 지출하는 비용은 원장이나 대표교사가, 자동이체나 계좌이체 등을 통해 지출하는 비용은 재정이사가 담당하도록 한다.

라. 예 · 결산

4-8	예산
	당해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한다.

당해 사업계획에 따른 지출내역을 감안하여 지출예산을 우선 편성해야 한다. 부모는 보육료와 조합비를 한꺼번에 내므로 이 모두를 고려하여 총보육비용을 책정한다. 이때 총보육비용은 당해 조합과 어린이집 운영에 부족하거나 넘치지 않도록 한다.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조합과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모든 수입, 지출내역을 반영하여야 하며, 되도록 추가금액(차량비, 들살이비, 관람비 등)을 걷지 않도록 한다.

어린이집 운영비 항목은 '보육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예산항목을 편성하고, 조합 운영비 항목은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이 발간한 〈부모협동보육시설 운영지침서〉의 '조합운영비의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한다.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되어있는 회계보고는 어린이집 운영비 항목이지만 조합원들에게 전체 공지할 때에는 어린이집 운영비와 조합 운영비를 모두 공지한다.

4-9	결산
	예산에 따라 지출하고, 매월 결산보고를 한다.

지출은 예산에 있는 내역만 지출해야 한다. 예산에 없는 내역을 임의로 결재해서는 안 되며, 지출하기 전에 반드시 예산을 확인하도록 한다. 만일 예산에는 편성되어있지 않지만 꼭 필요한 지출이라 판단되면, 어린이집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지출하도록 한다.

매월 결산을 할 때에는 1일과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결산하도록 하며, 한해 결산을 할 때는 년도 구분을 명확히 하여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매월, 매년 예결산 내역은 터전 게시판이나 사이트 등을 통해 반드시 공지하여 모든 조합원들이 조합과 어린이집의 재정 상태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한해를 결산하고 나면 적자 혹은 흑자가 되는데, 적자분은 해당년도에 처리하여 이월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흑자가 될 경우에는 정관에 따라 적립금을 반드시 적립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총회에서 결정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4-10	급여
	급여 지급은 인사규정, 급여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

교사의 급여는 인사규정과 급여규정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보육시설은 교사와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하는데, 근로계약서의 기본이 되는 것이 규정이기 때문이다. 교사의 급여와 복지 관련 내역을 지출할 때에는 반드시 규정을 살펴보고 그에 따라 지출하도록 한다.

교사의 급여 및 복지수준은 인근지역, 동일연차, 동일규모의 공동육아어린이집과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하는 것이 좋다. 공동육아어린이집은 부모와 교사들이 모두 법인회원으로 법인에서 권장하는 운영방식을 따를 의무가 있다. 특히 교사들은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교사회로 소속되어 있어 정보와 인적교류가 활발하므로, 급여 및 복지수준의 차이로 인해 심리적 동요가 일지 않도록 한다.

마. 재정문서

4-11	재정문서 관리
	조합과 어린이집의 재정 관리를 위해 구비서류, 장부, 증빙서류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조합과 어린이집의 재정 관리를 위한 문서들은 구비서류, 장부, 증빙서류로 나눌 수 있다. 어린이집 재정 관리 문서는 '보육시설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모든 서류를 구비 관리하여야 하며, 조합 재정 관리 문서 역시 어린이집 재정 관리 문서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구비서류는 사업계획서, 세입세출예산서, 세입세출결산총괄설명서, 세입세출결산서, 연도말 잔액증명서(거래은행 발행), 퇴직적립금 통장 사본, 퇴직적립금 예금잔액 증명서 등이다.

비치할 장부는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봉급대장, 보육료대장, 비품대장 등이다.

증빙서류는 계좌입금에 대한 증빙서류(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계좌입금증), 수입결의서, 지출결의서, 반납결의서, 예비비사용조서, 과목전용조서, 정부보조금명세서, 기부금명세서 등이다.

[영역 5] 회원활동 및 연대활동

공동육아협동조합어린이집의 구성원인 부모와 교사는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의 개인회원이 된다. 이는 곧 공동육아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일이며, 공동육아의 철학과 이념에 동의하고 그 가치를 공유하여 사회공동체적 보육운동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육아의 지향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해나가기 위해서는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의 회원활동은 물론 단위조합 사이의 연대활동, 지역사회와의 연대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단위조합이 독자적으로 공동육아협동조합과 어린이집을 운영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육아조합 사이의 교류를 통해 다양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해야 한다. 조합 사이의 연대활동은 공동육아의 교육환경을 확장시키고 정부 지원체계에 대응하는 등 단위조합의 한계를 뛰어 넘는데 도움을 준다.

한편 지역사회기관 및 다른 단체들과의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공동육아에 대한 의견을 지역 안에서 교류할 수 있어야 한다.

가. 회원활동

5-1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회원활동**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에서는 공동육아운동을 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다양한 정보와 교육을 지원한다. 또한 공동육아 교사양성 및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사의 성장을 도움으로써 각 어린이집 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은 회원들의 힘과 의지를 모아 운영되고 움직이는 기관으로, 각 개인이나 기관에서 납부하는 법인회비는 공동육아운동을 위해 쓰인다. 따라서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의 어린이집 부모회원, 교사회원 등은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회비 납부의 의무와 함께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에서 진행하는 각종 행사와 교육에 관심을 갖고 회원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나. 연대활동

5-2	공동육아협동조합간의 연대
	공동육아협동조합간의 연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공동육아협동조합간의 연대활동은 개별 조합의 이전 경험과 교훈을 통해 운영상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다양한 정보 공유 및 활용을 용이하게 한다. 지역자원의 개발과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해결책 모색에도 유익하다. 뿐만 아니라 단위 조합을 넘어 사회공동체적 보육의 장을 확장시키는 일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지역단위로 결성되어 있는 '조합대표자회의'를 활성화하여 조합의 실질적인 연대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정기적인 회의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내 조합 간의 연대활동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부모교육이나 교사교육의 경우 공통의 주제를 잡아 지역사업으로 진행해 보거나 단오잔치 등 지역 내 행사를 함께 기획하고 진행하거나, 산행이나 취미교실 등을 통해 우의를 다지는 것 등은 좋은 예이다.

5-3	지역사회와의 연대
	지역사회와의 다양한 연대활동을 계획하여 실행한다.

육아의 특성상, 공동육아는 지역에 기반을 둔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인간관계의 연계망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공동육아가 자칫 지역사회에 외로이 떠있는 고립된 섬으로 남지 않으려면 지역과의 교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모색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와의 연대는 그 지역의 특성과 조합의 성격 및 활동역량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다. 조합의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를 위해 무료 활동을 하거나 의미 있는 지역행사에 터전을 빌려주거나 동네 아이들에게 마당을 개방하는 사례들이 있다.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들과 연계하여 지원을 받는 것도 권할 만하다. 지역의 물적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터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네 도서관, 소방서, 보건소 등을 나들이 장소로 이용하거나 생활협동조합의 먹을거리를 이용하는 것이 그 예다. 인근 노인정과 협력하여 동네잔치를 벌이는 등 지역과 연계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러한 지역과의 교류는 영유아가 자신의 주변 환경에 대해 이해하고 적응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5-4	교사회의 연대
	지역 교사회 및 타 교사회와의 교류를 원활히 하고 있다.

공동육아 교사회는 지역의 다른 공동육아어린이집 교사회와 정기적인 지역교사회 모임을 갖고 있다. 지역 교사회를 중심으로 한 교사회 사이의 교류는 교육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활동을 보다 풍성하게 해준다. 또한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동료 간의 상호지지와 격려는 교사들이 공동육아에 정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지역교사회에서는 각 터전의 연령별 교육활동이나 장애아교육 뿐만 아니라 신입교사 오리엔테이션, 연령통합 방 구성 등 교사교육 및 교육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교사회 간 교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침체된 곳도 있으나, 각 어린이집 교사들은 연대의 의미와 가치를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

한편 일반 보육교사회와 교류를 시도해 볼 수도 있다. 공식적으로는 지역 내 보육시설 원장들의 모임에 참석해본다든지, 보육인연합회 행사 및 보육교사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반대로 '현장학교' 등 개방된 공동육아 교사교육을 안내하거나 교육모임을 마련하여 토론을 하는 것도 좋다. 이러한 다양한 교류를 통해 보육정책 및 보육사업 전반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영유아교육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며, 단위 교사회의 폐쇄성을 극복할 수 있다. 더불어 일반 보육시설과 공동육아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고 상호 존중하는 자세를 갖게 한다.

2. 교육부문

[영역 1] 터전 환경

터전의 환경은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환경이 바람직하다. 터전에는 마당이 있고, 근거리에 일상적인 나들이 장소가 될 수 있는 놀이터, 공원, 약수터, 산, 들이 있는 것이 좋다.

환경은 영유아의 학습 및 행동 습관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어린 시기일수록 환경의 영향이 크다. 영유아는 어린이집에서 10~12시간정도 장시간을 생활하게 되므로 실내외의 환경은 가정과 같이 편안하고 쾌적하며, 일상생활이나 놀이를 적극적으로 격려하도록 계획되고 구성되어야 한다.

영유아는 구체적으로 사물을 만지고 느끼는 직접경험이 중요하며, 놀이를 통해 경험과 지식을 습득하며 세상을 알아간다. 따라서 영유아의 연령, 발달정도, 흥미에 적합한 터전환경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교재교구 역시 다양하고 적절하게 제공해 주어야 한다.

실내 모든 시설과 설비의 크기는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하고 안전해야 한다. 공동육아는 장애영유아 통합을 지향하므로 장애영유아에게도 장애 유형과 발달수준에 상관없이 사용하기 편리하고 안전해야 한다. 실내외 어느 곳이라도 접근하고 이동하기 편리하도록 현관문턱이나 방문턱을 없애고 현관 계단은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를 설치하고, 벽에는 보조지지대나 안전바를 설치한다.

충분히 준비된 보·교육활동 자료는 교사의 계획된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영유아들의 놀이를 풍부하고 자유롭게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제시되는 활동 자료는 장애영유아를 포함하여 영유아의 연령, 인지, 언어, 신체, 정서 등 전반적인 개별 발달수준에 적합해야 한다. 또한 장애, 성, 인종에 대한 편견을 줄 수 있는 것을 피하고 다양성을 존중 할 수 있는 활동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영역에서는 공동육아의 교육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환경 구성과 쾌적한 환경유지,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교재교구의 구비에 초점을 둔다.

가. 터전 환경

1-1	마당과 놀이시설
	마당과 모래밭이 있고, 실외 놀이시설이 3종류 이상 있다.

공동육아어린이집은 마당과 나무가 있고, 물과 흙, 햇볕과 바람이 있는 곳이다. 놀잇감이

풍부한 마당은 영유아들이 실내에서 경험할 수 없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내적 에너지를 발산하게 해주고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게 해주며, 영유아의 다양한 흥미와 욕구를 충족시켜준다.

마당에는 기본적으로 모래놀이를 위한 모래밭과 수도시설을 한다. 모래밭의 놀잇감은 실생활에서 쓰는 생활용품으로 하되 영유아가 다루기 쉬운 것으로 마련하고 수납함에 정리하여 관리해야 한다. 모래놀이를 더 풍부하게 하고, 마당놀이를 마친 후에 실내로 들어갈 때 손을 씻고 들어갈 수 있도록 마당 한쪽에 수도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놀이시설의 종류가 적고 공간이 지나치게 협소하면 영유아간의 갈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아지므로 모래밭을 포함하여 놀이시설 수를 3종류 이상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모래밭 외 놀이시설로 놀이집, 미끄럼틀, 기어오르기, 나무등걸 등은 영유아들의 마당놀이를 촉진하는데 도움이 된다. 마당과 놀이시설에도 장애영유아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하며, 놀이 중간에 쉴 수 있도록 한쪽에 의자를 만들면 여러 가지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장애영유아의 이동과 접근이 가능하도록 턱을 없애고 보완시설을 한다.

모래밭은 주변의 지면보다 낮은 것이 보존하기에 좋다. 모래는 연 1~2회 교체해 주는 것이 위생적이며, 모래밭의 위치는 가능한 현관에서 먼 곳에 설치하는 것이 실내로 모래가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어린이집 마당이 협소하여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지 못할 때에는 어린이집 근처의 놀이터나 근린공원 등을 활용하여 실외놀이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1-2	나들이 장소
	걸어서 20~30분 정도의 거리에 일상적으로 다녀올 수 있는 나들이 장소가 있다.

공동육아어린이집은 일상적인 나들이를 하기 위해서 터전에서 걸어서 20~30분 정도의 거리에 공원, 들, 산, 놀이터 등의 바깥나들이를 위한 장소가 있어야 한다.

영유아들은 자연으로의 나들이를 통해서 자연을 풍부하게 즐기고 탐색하며 감성을 키운다. 또한 일 년 이상의 반복적인 나들이로 같은 장소의 계절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체험하고 인식하게 된다. 날씨에 따라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너무 덥거나 추울 때에는 나들이를 제한 할 수밖에 없지만, 그 외에는 일상적으로 나들이를 하며, 비가 올 때는 우비를 입거나 우산을 쓰고 나들이를 하기도 한다.

나들이 장소나 나들이를 가는 과정에 위험한 요소가 있는지 살펴서 안전한 나들이가 되는 것이 중요하며, 영유아의 발달정도에 따라서 거리나 장소를 조절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어린이집이 위치한 지역의 주변 특성을 활용하여 풍부한 지역 나들이 장소를 개발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1-3	텃밭
	어린이집 마당 안이나 가까운 근처에 텃밭을 가꾸고 관리한다.

공동육아어린이집에서 텃밭활동은 매우 중요하므로 어린이집 마당 안이나 가까운 근처에 텃밭을 가꾸고 관리해야 한다.

영유아는 텃밭활동을 통해서 직접 씨를 뿌리거나 모종을 하고 수확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에 참여를 하게 되고 먹거리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게 된다. 또한 자라나는 식물을 보면서 계절의 변화와 자연의 순환을 앎과 동시에 과학적인 탐구력도 키울 수 있다.

마당에 볕이 잘 드는 텃밭이 있는 것이 가장 좋지만 담 밑이나 적당한 공간을 확보하여 텃밭이나 꽃밭을 만들 수도 있다. 하지만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커다란 화분이나 함지박을 이용하여 식물을 가꾸거나, 가능한 터전과 가까운 곳에 텃밭을 구하여 가꾸고 관리한다.

1-4	채광과 조명
	자연 채광이 충분하고, 조명시설이 적절하며 제대로 작동된다.

어린이집의 안과 밖은 자연채광이 잘되고 적절한 조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자연채광은 건강과 정서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실내의 적합한 밝기는 영유아의 일상생활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놀이를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실내 구조상 자연 채광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공조명으로 대체하되 눈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을 정도의 간접조명을 사용하여 밝기와 색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내는 각 공간마다 그에 적합한 조명의 밝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음식을 먹는 장소에는 안정된 느낌을 주는 조명을, 책 읽는 장소는 그림자가 생기지 않고 잘 보이는 조명을, 활발한 놀이가 이루어지는 공간은 밝은 조명을 사용해야 한다.

영유아의 보행이 많은 복도나 계단, 세면실 등은 어두운 경우에는 전등을 항상 켜 두는 것이 좋고, 화장실도 센서를 달거나 상시로 켜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낮잠을 잘 시간에 각 방에서는 영유아들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커튼을 활용하여 채광을 적절하게 조절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마당에도 조명을 설치하여 영유아들의 놀이나 통행에 불편함이 없게 해야 한다. 또한 모든 조명시설이 영유아의 필요에 따라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제대로 작동되어야 한다.

1-5	방의 배치
	실내 공간이 영유아의 연령, 발달특성을 고려하여 생활하기 편리하고 영역별로 구성되어 있다.

어린이집은 다수의 영유아가 함께 생활하면서 다양한 놀이가 같은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장소이므로 연령과 발달특성, 집단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탐색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놀이특성에 따라 사용이 가능한 자료들을 모아서 영역별로 배치하여 서로 방해받지 않도록 한다.

자료의 영역배치 뿐 아니라 시끄러운 놀이와 조용한 놀이, 움직임이 많은 놀이와 움직임이 적은 놀이, 물이 사용되는 놀이와 그렇지 않은 놀이들은 서로 분리되도록 놀이 공간을 배치하는 것이 좋다.

영아방은 일상적인 양육(기저귀 갈기, 수유, 손 닦기 등)을 위한 공간과 흥미 있는 대상을 탐색할 수 있는 놀이공간을 적절하게 구성한다. 또한 활동이 제한적임을 고려하여 넓고 위생적이며 조용하고 햇볕이 잘 드는 공간으로 배치한다. 가능하면 욕실, 싱크대, 간단한 조리시설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나 여의치 않을 때는 이러한 시설 가까이 동선을 고려하여 방을 배치한다.

유아방은 활동이 많아지므로 흥미에 따라 선택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언어영역, 탐색영역, 미술영역, 휴식공간을 우선 배치한다. 공간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역할 및 쌓기영역이나 음률영역은 복도나 공통영역에 구성할 수 있다. 한 개의 방에 필요한 모든 영역을 배치하기 어려우면 한두 가지 영역으로 제한을 두되 필요할 때, 혹은 허락된 시간에 아동들이 이동하여 원하는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한다.

거실이나 마루는 대집단 활동, 즉 큰 모둠활동이나 생일축하잔치, 혹은 식사 공간으로 활용이 되기도 하며, 자유놀이시간에는 소집단의 다양한 활동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공간이다. 효율적인 측면에서 붙박이가구를 놓기보다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이동이 가능하면서 동시에 변형이 가능한 기물을 비치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각 방은 문턱 없이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위치해 있어 장애영유아가 휠체어나 보행기로 이동하는데 장애가 없어야 한다.

1-6	영유아의 휴식공간
	영유아가 혼자 활동하거나 휴식을 취할 공간이 있다.

영유아가 하루 종일 집단생활을 하다 보면, 긴장감을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거나, 혼자서 활동하고 싶을 때에 이러한 개별적인 요구를 배려하기 위해서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실내에 마련해야 하며, 방석이나 깔개 등을 이용하여 아늑하게 꾸며 주어야 한다.

휴식공간을 마련할 때 공간의 크기나 위치보다는 휴식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공간이 없어서 별도의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다른 영역과 통합하여도 좋으나 휴식을 충분히 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구장과 교구장 사이 빈 공간을 천을 이용하여 가려주고, 복도에 작은 공간을 마련하여 그림책이나 소음이 적은 놀잇감과 함께 휴식공간을 마련할 수도 있다.

특히 영아는 좁은 구석이나 열린 장 속, 가구 틈새에 비집고 들어가 앉아 있기를 좋아하는데, 이러한 곳은 교사의 시선이 가지 않아 위험할 수 있으므로 안전을 반드시 고려한다.

1-7	교사를 위한 공간
	업무를 하기 위한 교사실이 있으며 별도로 교사의 개인사물함이 있다.

교사회의를 준비하거나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를 준비하기 위한 별도의 공간이 있어야 한다. 교사실은 교사의 업무를 보거나 부모상담, 조합 가입문의 상담, 문서나 자료의 보관, 교육기자재 보관 등을 하는 공간이다. 동시에 교사들이 잠시라도 휴식을 취하거나, 옷을 갈아입는 용도로 쓰이는 등, 영유아 위주로 구성된 환경 속에 있는 교사의 불편과 긴장을 완화시켜 주는 곳이기도 한다.

터전을 신축할 경우에는 교사실을 마련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간을 분리하여 부분적으로라도 교사실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교사의 직무를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교사용 책상이나 개인 소지품을 넣어둘 수 있는 사물함이 필요하며, 이는 교사실에 두어도 되지만 공간적인 여유가 없으면 각방에 두어도 된다.

1-8	비품과 활동자료의 보관 장소
	비품과 활동 자료를 보관할 창고 또는 자료실이 있으며, 자료가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다.

보 · 교육활동을 위한 다양한 활동자료와 비품들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나 자료실을 마련하고, 쉽게 꺼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항목별로 정리하여 관리해야 한다. 이는 곧 교사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활동자료와 비품은 주제나, 계절에 따라 쉽게 찾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으며, 교육계획과 영유아의 흥미, 적응정도에 따라 융통성 있게 교체해준다.

터전을 신축할 경우에는 설계할 때부터 충분히 자료실을 고려할 수 있다. 별도의 창고나 자료실이 없는 경우에는 분산 수납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럴 경우에는 자투리 공간이나 선반을 활용하여 수납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이때 물건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깨끗하게 정리정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료보관함 겉면에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내용물의 이름을 기록하고 교재교구 및 비품대장을 마련하여 관리한다. 교육활동의 기록과 보관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는 여러 명의 교사가 사용하게 되므로 사용 용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책임자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9	기저귀 갈기를 위한 장소
	기저귀를 갈기 위한 장소가 마련되어 있다.

영유아에게는 기저귀를 갈거나 화장실에 가는 등 배변활동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지극히 개인적인 활동이다. 따라서 교사가 기저귀를 갈아 줄 때는 일정하게 정해진 장소에서 갈아주어야 한다.

기저귀 가는 장소를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교사는 바람직한 상호작용을 하여 영유아가 심리적인 안정을 느끼고 자존감과 자신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저귀를 갈아줄 때 다소 시간이 걸린다거나 자꾸 움직이는 경우에는 영아의 손이 닿는 곳에 놀잇감을 2~3개 정도 마련하면, 영아가 놀잇감에 집중하게 되므로 기저귀를 가는데 도움이 된다.

기저귀 가는 장소의 위생적인 환경을 위하여 기저귀, 방수요, 위생장갑, 물휴지, 소독액 등의 물품도 구비해야 한다.

나. 보·교육활동 자료

1-10	언어활동자료
	언어활동을 위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자료가 다양하고 충분하다.

영유아의 언어발달에 따라 바람직한 언어습득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언어활동 자료를 구비해야 한다.

영아방의 언어활동은 교사와 함께 책을 보거나 교사가 읽어주는 활동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림을 보거나 단순히 책장을 넘기는 활동을 즐기기도 한다. 이러한 영아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절과 발달에 맞는 다양한 그림책을 영아가 직접 꺼내볼 수 있는 위치에 전면으로 비치

하고 계절에 따라 교체해 준다. 공간이 좁다면 벽에 걸 수 있는 책꽂이를 만들어도 된다. 말하기 자료로는 이야기를 극화하여 상상놀이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인형들(손으로 만든 커다란 인형, 손가락 인형, 막대인형 등 세척이 가능한 헝겊인형 등)과 간단한 소품들(그릇과 가방, 전화기 등)이 있다. 소품들은 그 모양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서 가변적 상상이 가능한 것이 좋다. 또한 영아의 가족이나 친구 사진, 하루일과의 순서를 나타내는 자료 등을 비치하는 것은 언어발달을 촉진한다.

유아방의 언어활동 자료로는 계절에 따른 그림책 외에도 더 다양한 종류의 읽기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유아들의 발달수준에 맞고, 흥미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활동주제와 연관된 그림책, 또는 유아들이 만든 그림책을 전면으로 비치하고 주기적으로 교체해 준다. 더불어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종이들(개인사용의 8절이나 16절종이, 경우에 따라 동그란 종이 등)과 각종 필기구(연필, 색연필, 크레파스, 사인펜, 붓펜, 등)를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하고 듣기 자료로 이야기를 꾸미거나 자신이 아는 이야기를 극화하여 표현할 수 있도록 소품들(막대인형, 테이블동화, 융판동화, 등)과 자기 목소리나 가족, 친구 등의 목소리를 녹음하고 들을 수 있는 녹음기, 마이크를 준비하면 유아들의 언어발달을 촉진할 수 있다.

모든 언어활동 자료는 조용하고 밝은 곳에 잘 보이도록 배치하고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깔개나 방석 쿠션 등을 함께 마련하면 도움이 된다.

1-11	탐구활동자료
	자연물과 수작업활동, 과학 활동을 위한 자료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영유아는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감각을 통하여 주변을 탐색하고 과학적 태도와 지식을 습득하게 되므로 자연물과 수작업활동, 과학 활동을 위한 자료를 다양하게 마련해야 한다.

공동육아어린이집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나들이, 텃밭활동, 세시절기에 따른 요리활동은 가장 현실적인 탐구활동의 장을 제공한다. 하지만 실내에서도 영유아들의 발달정도와 흥미에 따라 자연스럽게 탐색하고 체험할 수 있는 탐구영역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아방에는 평면자료보다는 실제 자연물(도토리와 솔방울, 마로니에열매, 나뭇잎 등)과 다양한 실물자료(모양 맞추기, 고리 끼우기, 흔들거나 두드리는 기구 등)가 좋으며,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서 똑같은 모양과 색의 놀잇감을 영아의 수에 맞추어 준비하는 것이 좋다. 특히 영아들에게 제공되는 모든 자료는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유아방에도 나들이에서 수집해온 자연물(다양한 돌과 나무껍질, 조개껍질, 솔방울, 도토리나 밤 등)을 모아두고, 어항에 물고기를 기르거나, 화분에 식물을 기르기 등을 할 수 있다. 이때 함께 자연도감(식물도감, 동물도감, 나무도감 등), 자석이나 돋보기, 확대경 등을 사용

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 수작업 활동을 위한 자료들(점토, 바느질, 직조, 실뜨기, 칠교, 산가지 등)은 유아들의 탐구력과 집중력, 의지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최소한의 규칙이 있는 수게임이나 주사위 등을 제공하여 수 개념의 형성을 도울 수 있다.

1-12	표현활동자료
	표현활동(음률, 미술)을 위한 자료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영유아는 표현활동을 통하여 신체발달 뿐만이 아니라 창의성과 미적인 감각을 발달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서 표현활동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들을 충분하게 제공해야 한다.

음률활동 자료는 우리가락을 느끼고 익힐 수 있는 국악기(소고, 장구, 북, 꽹과리, 징 등)와, 다양한 음색을 경험하고 박자감각을 익힐 수 있는 악기(딸랑이, 마라카스, 종, 리듬막대, 탬버린, 트라이앵글, 핸드벨, 실로폰 등)가 있고, 또한 계절과 상황에 따라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음악테이프와 CD, 카세트와 CD플레이어가 있으며, 표현에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색의 보자기와 스카프, 끈, 리본테이프, 한삼, 부드러운 수건, 탈과 같은 소품들이 있다.

미술활동은 영유아기 때 크레파스, 색연필 등 간단한 재료로 긁적거리는 초보적인 단계에서부터 시작되며, 점차 다양한 종이와 도구, 재료 등을 사용하여 탐색하고 나타난 그림 등의 작품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단계로 발전한다. 이때 제시할 수 있는 자료는 다양한 종이(도화지, 색종이, 한지, 잡지, 신문지, 골판지, 셀로판지 등), 그리고 쓰는 도구(크레파스, 색연필, 사인펜, 연필, 파스텔, 수채물감과 붓 등), 자르고 붙이는 도구(풀, 가위, 수수깡, 셀로판테이프, 끈, 빨래집게 등), 점토류(찰흙, 밀가루점토, 지점토, 종이점토 등), 콜라주나 만들기 재료(지끈이나 털실, 헝겊, 나무젓가락, 빨대, 단추나 각종 폐품류 등)가 있다. 영아의 경우 마음대로 긁적거리기를 할 수 있도록 벽면이나 바닥에 전지를 붙여줄 수도 있다.

실내에 이러한 창의적인 활동을 위한 장소를 마련하고 영유아의 눈높이에 맞는 게시판에 작품을 전시하여 영유아의 성취감, 자신감을 북돋아주는 것이 좋다.

1-13	역할 및 쌓기놀이 자료
	역할놀이 자료가 다양하고, 쌓기놀이 자료가 최소 3종류 이상 마련되어 있다.

영유아는 역할 및 쌓기놀이 자료를 이용하여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내용에서부터 상상한 내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모방하며 놀이로 표현하기를 즐긴다. 따라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주변의 행위를 모방하여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역할 및 쌓기놀이(소꿉놀이, 가족놀이, 병원놀이, 음식점놀이, 블록 쌓기, 동물원 꾸미기 등)를 할 수 있는 놀잇감을 제공하

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제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역할 놀잇감은 소꿉놀이용품(가방류, 장신구, 모자, 보자기, 끈, 다양한 인형들, 포대기, 인형침대, 그릇, 전화기 등), 주방용품(싱크대나 둥구미그릇들, 수저, 주전자 등), 직업 관련 의상(남녀한복, 드레스, 요리사모자, 간호사 모자, 의사가운 등), 아동용 안전거울 등이 있다.

쌓기놀이자료는 다양한 종류의 블록류(종이블록, 유닛블록, 카프라, 헝겊으로 감싼 스펀지블록 등)가 있으며, 여기에 부정형의 크고 작은 나무토막들과 여러 가지 탈것이나 기둥 등의 표지판, 동물이나 사람모형을 함께 두면 놀이를 풍부하게 할 수 있다. 특히 영아용으로는 가볍고, 손에 잘 잡히며 안전한 블록을 주어야 한다.

역할놀이와 쌓기놀이 영역을 가까이 두면 놀이를 더 풍부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놀이에 필요한 다양한 소품들은 폐품을 이용하여 교사가 직접 만들어 줄 수 있다.

1-14	전통놀이자료
	전통놀이 자료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공동육아어린이집은 전통놀이를 일상적으로 하여 예로부터 전해지는 놀이를 계승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전통놀이와 노래는 우리 정신문화의 소중한 유산이므로 적극적으로 체험하여 즐기고 계승할 수 있도록 풍부한 전통놀이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전통놀잇감에는 칠교, 고누, 윷놀이, 산가지놀이, 실뜨기, 줄넘기, 비석치기, 연날리기, 고무줄, 썰매, 팽이, 백두대간놀이, 공기놀이, 판 뒤집기 등 혼자 즐기는 것과 둘이, 혹은 여럿이 함께 즐기는 다양한 형태가 있다. 이러한 자료는 자유놀이를 할 때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통놀이에는 특별한 자료가 없어도 즉석에서 여럿이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놀이(대동놀이, 씨름, 줄다리기, 꽃따기, 너리기펀지기, 사방치기, 땅따먹기, 닭잡기놀이, 장님놀이, 얼음땡,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등) 가 많은데, 교사는 이러한 내용을 활동자료로 만들어서 자료화 한다.

교사는 터전에서 지속적으로 영유아들이 전통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보 · 교육활동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장애영유아들이 놀이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공동체놀이를 통해서 항상 배려해야 한다.

[영역 2] 터전 운영

터전 운영의 내용 중 재정, 종사자, 교사회의 운영 등은 공동육아의 특성상 운영부분으로 제외하고, 여기서는 영유아관리에 해당되는 부분만 다룬다.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체계적인 관리는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과 개별 영유아에 대한 적절한 보·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이므로 기준과 원칙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2-1	방 구성
	교사 대 영유아의 수가 법인의 권장사항, 건물의 규모, 방의 크기에 비추어볼 때 적합하다.

공동육아에서의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은 매일 이루어지는 나들이와 아이들의 특성에 맞는 개별적인 요구를 보장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정해진다.

또한 공동육아에서는 장애영유아 통합교육을 지향하므로, 적극적인 통합교육을 위해서는 방구성시부터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영유아가 소속되는 방은 통합교사가 따로 없는 한 교사 대 영유아비율이 더 낮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차원에서 충분한 이해와 배려가 전제되어야 한다.

교사	영유아 연령	최소인원	최대인원	법정인원
1	만 0세	3	3	3
1	만 1세	3	3	5
1	만 2세	5	7	7
1	만 3세	8	10	15
1	만 4세, 만 5세 이상	10	13	20

위의 비율은 각 터전의 규모와 조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며, 통합연령인 경우 어린 연령 기준에 따른다.

2-2	신입 영유아의 적응절차
	신입 영유아의 적응을 위한 과정은 최소 1주일 이상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신입 영유아는 처음 오는 어린이집의 새로운 환경과 낯선 사람들과의 만남, 부모와의 분리 등으로 불안을 느끼기 쉽다. 이러한 불안은 부모도 똑같이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어린이

집에서는 신입 영유아와 부모가 새로운 터전 분위기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아이의 연령, 개인적 기질, 이전의 보육시설 경험, 부모의 직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최소 1주일 이상의 적응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한 영유아와 부모가 느끼는 각각의 어려움을 파악하여 올바른 부모 역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적응과정에 대한 이해를 구하여 함께 참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적응프로그램은 부모와 함께 등원하여 짧게 방문하기, 부모와 함께 등원하여 오전놀이와 점심 먹기, 부모와 떨어져서 오전놀이와 점심 먹기, 낮잠 자보기, 하루 종일 생활하기 등의 단계에 따라 진행한다.

이러한 신입 영유아의 적응은 개별적인 조건에 따라 다르며, 기간 또한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신입영유아가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에 등원하기 전에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영유아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고, 서서히 터전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신입영유아가 적응하고 있는 동안, 기존에 있는 영유아들에게도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2-3	영유아에 대한 문서관리
	모든 영유아에 대한 문서가 잘 비치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영유아의 다양한 발달 및 학습 영역에서의 변화는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효율적인 보·교육활동을 위해서는 개별 영유아의 발달 상황과 변화를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영유아의 기록으로는 생활기록부, 응급처치동의서, 귀가동의서, 투약의뢰서, 건강진단카드(년 2회 이상 신체계측 기록 포함), 영유아 관찰기록, 부모면담기록 등이 있다. 영유아에 대한 기록은 발달적으로 적합한 보·교육활동을 계획하는데 도움이 되고, 영유아의 발달을 보다 적절히 지원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된다. 이러한 문서들은 개인파일로 묶어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참고할 수 있도록 비치해 두며, 새로 방구성이 되거나 교사가 바뀔 때 인수인계한다.

[영역 3] 보 · 교육과정

가. 보·교육활동의 계획 및 구성

모든 영유아들은 각자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인격체이다. 또한 영유아기는 발달이 빠르게 일어나는 만큼 영유아들 사이의 발달차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다양한 차이를 지닌 영유아들이 하루 종일 생활하는 공간인 어린이집의 보·교육과정은 그 어느 교육기관보다도 대상에 따른 다양성과 융통성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자칫 영유아들의 흥미와 자발성을 살리는 보· 교육활동은 별도의 계획 없이 이루어져도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교사가 영유아의 흥미와 자발성을 고려해야 함은 분명하나 즉흥적이고 일시적인 흥미와 진정한 흥미는 구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사의 직관적 통찰력이 필요하다. 아무리 천부적인 교사라고 해도 처음부터 완벽한 직관적 통찰력을 발휘할 수는 없다. 교사에게는 통찰력의 근간이 되는 세심한 관찰과 반성적 사고, 그리고 실천을 통한 체화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용되는 방법이 계획-실행-평가의 과정을 순환적으로 거치는 것이다. 머릿속으로만 이루어지는 계획은 구체성이 떨어지고 검토와 수정의 과정을 거치기 어려우므로 기록이 필요하다.

계획안을 작성하는 일은 출발점에서 챙겨 가야할 지도와 나침반을 마련하는 일에 비유할 수 있다. 새로운 교육의 길을 찾아나가고 있는 공동육아 교사들에게 있어 계획안의 작성은 시행착오의 반복을 줄이면서 보다 질 높은 보·교육활동을 실천하고 공유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 하겠다. 계획-실행-평가의 기록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지점은 이러한 노력이 궁극적으로 교사 자신의 직관적 통찰력을 기르고 체화함으로써, 영유아와 보다 의미있는 경험을 함께 나누기 위한 과정으로 형식보다는 내용을 중시해야하는 점이다.

특별히 장애영유아의 경우는 세심한 관찰과 교육진단, 개별화 교육프로그램의 수립, 평가의 과정이 좀 더 강조된다. 즉, 장애영유아의 특성과 각 발달영역(신체발달, 사회·정서발달, 언어·인지발달 등)에 대한 관찰 및 현행수준에 대한 진단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장단기 목표와 교육계획이 수립되어야한다. 이러한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이 매일의 일과와 전체적인 보·교육과정 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재조정하여 장애영유아의 교육기회를 가능한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한다. 모든 장애영유아 통합교육의 과정에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치료사, 부모간의 협력은 필수적이며, 이는 장애가 복합적이거나 심할수록 더욱 강조된다. 협력은 정보교류와 효과적인 보·교육방법의 계획 및 실행,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때에 따라 문서 전달 등의 간접적인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3-1	보·교육계획안의 수립
	연간, 월간 또는 주간 보·교육계획안을 구체적이고 연계성 있게 마련한다.

일관성 있는 보·교육활동의 실행을 위해 터전의 특성과 목적에 부합하는 연간, 월간, 주간, 일일계획안 및 보·교육 일지를 구비해야 한다.

연간계획안은 각 터전의 특징과 목적, 그 해의 강조점 등을 고려한 연간 교육의 방향과 일 년의 흐름에 적합한 주제, 세시와 절기에 따른 활동(이야기, 전통놀이, 절기활동, 요리 등), 터전의 행사계획, 먼나들이 계획 및 텃밭 가꾸기 일정과 방별 연간 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월간계획안은 보다 구체적인 주제와 세시절기에 따른 계획과 준비사항, 확인사항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주간계획안은 한 주간 이루어지는 다양한 세부 활동의 개요 및 계획과 준비사항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일일계획안을 작성하여 보다 짜임새 있는 운영을 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각 방의 교사는 주간 교사회의 전에 보다 구체적으로 계획된 방별 주간계획안을 준비하여 논의하고, 방별 보육일지를 보다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교육계획을 세울 때는 충분한 정보와 세심한 관찰이 필수적이다. 부모 및 교사의 관찰과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파악된 장애영유아의 현행수준에 따라 장단기 교수목표, 시작일과 종료일, 평가방법 등을 명시한 개별화 교육프로그램을 작성한다.

계획안은 말 그대로 안(案)이다. 따라서 충분히 근거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다면 수정할 여지를 두고 융통성 있게 활용해야 한다. 이 때 교사의 자의성과 융통성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하며, 교사는 담당하고 있는 연령의 영유아들에 대한 전반적인 발달적 이해와 개별 영유아에 대한 평소의 관찰을 바탕으로 다양성을 고려한 계획안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3-2	보·교육활동 계획의 균형
	보·교육활동의 계획은 집단 활동과 개별 활동, 동적 활동과 정적 활동, 교사주도활동과 영유아 선택활동, 일상적 양육과 교육 및 놀이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다.

보·교육활동은 전체, 방별, 연령별 집단활동과 개별활동을 유아의 발달수준과 활동의 성격을 고려하여 균형을 이루도록 계획해야 한다. 다양한 연령과 크기의 집단이 함께 생활하는 경험은 공동체 교육에 꼭 필요하지만 집단적 요구에 반하지 않는 개별적 흥미와 요구를 풀어낼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인적 흥미를 추구할 수 있는 활동이나 개별 휴식 등을 위한 시간적, 공간적 배려가 필요하다.

유아가 스스로 주도하는 활동과 교사가 주도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활동이 균형을 이

루도록 배치, 계획해야 한다. 사회, 문화적으로 공유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험과 지식들은 교사주도의 활동으로 계획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과 지식들을 영유아들 각자의 것으로 창조적으로 해석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경험할 기회와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일상적 양육 활동과 교육 및 놀이 활동의 균형을 고려하여 계획해야 한다. 먹기, 입기, 배변하기, 씻기 등 일상생활을 위한 시간이 지나치게 많지는 않은지, 일상생활활동을 자율적인 기본생활습관 교육으로 연결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활동 시간 사이의 전이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좀 더 많은 교육 및 놀이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동적활동(신체표현, 게임, 실외놀이 등)과 정적활동(이야기 나누기, 그림 그리기, 동화듣기 등)을 균형 있게 계획해야 한다. 나들이는 공동육아 보·교육과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나들이의 장소와 내용은 하루 전체의 활동계획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오전에 신체적 에너지 소모가 많은 나들이 장소와 내용으로 계획된다면 오후활동은 보다 정적인 활동을 중심으로 계획할 수 있다. 오전의 나들이가 가볍고 조용한 산책 정도로 계획된다면 오후활동은 보다 동적이고 표현적인 활동으로 계획할 수 있다.

장애영유아의 경우, 하루 일과를 안정되고 예측 가능하게 진행하여 장애영유아가 혼란스럽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3-3	보·교육활동의 평가
	보·교육활동 평가의 과정을 교사회와 공유하고, 평가내용을 부모들과 공유하며, 평가결과를 다음 계획에 반영한다.

보·교육과정을 실행한 후에는 보·교육의 목적에 적합하게 실행되었는지를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방별 보·교육일지에는 아동출결상황, 일과의 흐름에 따른 보·교육활동의 기록, 개별아동의 관찰기록, 교사의 평가 등을 간략하게 기록할 수 있다. 주 1회 이상 교사회의를 통해 평가의 내용과 과정을 공유하고, 다음 보·교육과정의 계획에 반영한다. 평가의 결과를 월 1회 이상 방모임이나 자료집,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부모들과 공유해야 한다. 연 2회의 상하반기 평가를 통해, 계획되었던 활동과 실시된 활동을 비교 분석해봄으로써 보·교육과정의 구성과 내용이 균형을 이루었는지, 효과적이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대체로 하반기 평가는 연말평가로 대체하기도 한다.

장애영유아의 경우에는 개별교육계획에 명시된 장단기목표가 성취되었는지를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평가방법은 관찰, 포트폴리오, 체크리스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다.

보·교육활동을 평가할 때는 교사가 준비한 활동과 자료가 영유아의 발달과 학습에 적합한 수준이었는지, 매일의 하루 일과가 영유아의 신체 리듬과 심리적 상태를 고려하여 적합하게

계획되고 실행되었는지, 영유아가 주도한 활동을 적절하게 지원했는지, 활동시간의 배정은 적절했는지, 수정 또는 보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등등을 평가한다.

모든 평가의 결과는 차기 보·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되어야 한다.

	공동체교육
3–4	어른과 영유아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배려하고, 돕고, 협력하는 공동체적 삶을 구현하기 위한 생활교육을 계획한다.

공동육아에서 추구하는 공동체교육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배려함으로써 행복하게 살기 위한 노력이다. 장애나 연령, 성에 구애받지 않으며, 함께 살아가는 열린 구조의 사회를 지향하는 생활 속의 교육이 되어야 한다.

어떤 장애에 대해서도 편견을 가지지 않으며, 다양한 차원에서 상호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장애영유아 통합교육이 되어야 한다. 연령통합 형태의 방구성일 경우에는 연령구성을 고려하여 세심하게 배려된 교육활동을 준비해야 하며, 연령별 방구성일 경우에는 활동별로 통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계획한다. 더불어 영유아들을 남여로 구분하기보다 양성성을 인정하며, 각자의 고유성을 수용하는 성차별 없는 교육을 해야 한다.

또래와 더불어 생활하는데 필요한 약속을 일상생활 속에서 만들어내고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영유아들이 또래들과 사이좋게 잘 생활하기 위해서 모둠의 새로운 규칙을 만들고, 이것을 그들 스스로의 제안과 협의를 통해서 마련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경험이다. 이미 정해진 규칙도 문제가 발견된다면 교사와 영유아들이 함께 새로운 협의의 과정을 통해 보다 적절한 규칙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

영유아들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하거나 특별히 고착된 또래관계가 지속되어 다른 영유아들이 소외감을 느낀다면 마실을 권유하여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 마실은 영유아들의 관계 맺기나 어른들의 새로운 관계를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주중에 지나친 마실로 인해 생활의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함께 살아가는 열린 구조 안에서 의사소통 및 협력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한다. 예를 들어, 모둠활동, 공동체놀이, 지역사회 연계활동 등을 다양하게 계획할 수 있다.

	생태교육
3–5	생명의 기쁨과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고, 자신의 주변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가지도록 계획한다.

자연스럽게 생태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나들이, 텃밭 가꾸기, 먹거리

등을 계획한다. 나들이는 영유아들의 공간을 건물이라는 좁은 환경에 제한하지 않고, 자연과 지역사회라는 보다 구체적이고 현장감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나들이를 통하여 지역의 역사에 관심을 갖고, 문화적 소양을 키워간다. 나들이를 통해 영유아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자연 및 인간과의 관계를 형성한다.

이와 같이 나들이와 텃밭 가꾸기를 통한 생태교육은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로의 출발이다. 어린이집 마당에서 시작된 영유아들의 작은 발걸음이 모여서 어른들의 생활공동체로 이어진다.

영유아들은 텃밭 가꾸기 활동을 통해 인간의 삶과 자연과의 관계를 체험할 수 있다. 영유아들은 직접 흙을 만지고 채소를 가꾸며 음식쓰레기, 퇴비, 동물들의 분뇨가 거름이 되어 작물을 키우는 것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또 씨앗이 자라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며 계절의 변화를 알게 되고 생명의 가치를 느낄 수 있다. 또한 여건이 된다면 터전에서 토끼나 닭 등의 동물 기르기를 마련한다면 돌봄과 책임감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다.

3-6	표현교육
	영유아의 흥미, 요구, 발달을 고려하여 다양한 표현활동을 계획한다.

영유아는 음악, 동작, 미술, 극과 같은 다양한 예술적 표현활동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여 의사소통한다. 표현교육은 영유아의 창의적 표현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자연과 사물의 예술적 요소를 탐색하고 감상하고 표현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표현교육은 다양한 음률, 미술, 극놀이를 통하여 예술에 대한 호기심과 심미감을 기르고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도록 특정한 기능을 익히는 것뿐만 아니라 사물을 직접 만져보고 느끼는 과정을 통해 능동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예를 들어, 음률 활동은 음악 듣기, 노래 부르기, 풍물을 비롯한 국악놀이, 음악에 맞추어 춤추기 등으로 자기표현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미술 활동은 다양한 재료를 충분히 탐색하여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기, 그리기, 오리기, 먹 작업하기, 흙 놀이 등을 한다. 풍부한 미술활동을 위해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방문하여 다른 사람들의 작품을 감상하고 이해하는 기회도 필요하다. 극놀이는 언어활동, 신체활동, 음률활동, 미술활동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종합예술활동으로 영유아들은 극놀이를 함께 하는 동안 서로 협력하게 된다. 연극, 풍물, 인형극, 탈춤 등 다양한 극 활동을 감상하고, 직접 해봄으로써 표현력과 발표력을 키우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극 활동을 계획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7	생활문화교육
	세시절기의 흐름에 따라 생활문화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공동육아의 생활문화교육으로는 어린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자발적 놀이, 전통문화를 재구성하려는 전래놀이, 세시절기교육, 옛이야기 들려주기 등이 있다. 특히 놀이를 통한 교육을 한다는 것은 영유아들이 자발적, 주체적으로 자기 삶을 조직한다는 의미가 있다.

절기의 흐름에 따라 음식, 놀이, 마실, 이야기문화 등 전통문화를 살리는 생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세시절기에 따라 영유아들을 키우는 일은 영유아들을 자연의 흐름에 맞게 키우는 일이다. 절기의 흐름에 따라 전래놀이나 공동체놀이를 또래와 함께 나눌 줄 알며,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의 기후에 맞게 계절에 생산되는 자연식품으로 만든 음식으로 섭취하여 건강생활을 한다. 영유아들의 일상생활은 곧 교육이 되므로 생활에 필요한 간단한 먹거리를 직접 만들어 보거나 만드는 것을 관찰한다. 장담기를 비롯하여, 김장, 과실차 만들기, 진달래 화전 등 저장음식이나 절기음식 만들기 등을 통하여 먹을 것을 직접 만들어 봄으로써 세시절기의 흐름에 관심을 갖는다.

세시절기에 따른 놀이문화를 재발견하여 영유아들과 함께 놀아보는 것은 사라져가는 전통문화를 전승하고, 놀이를 통한 신명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영유아들은 또래와 놀고, 또래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혼자보다 여럿이 놀 때 기쁨이 배가 되는 것을 경험한다.

옛이야기를 들려주며 영유아들에게 상상력을 갖도록 도와주고, 생활 속의 이야기를 가족과 또래, 교사와 나눌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열 수 있는 이야기문화를 만들어 간다.

3-8	기본생활습관교육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자기관리습관 및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데 필요한 약속들을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계획한다.

자신의 몸과 주변을 깨끗이 하기, 올바른 식습관 갖기, 일과에 따라 적당한 잠자리와 휴식 갖기, 스스로 옷을 입고 벗는 습관 갖기, 놀잇감을 안전하게 올바르게 사용하기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자율적인 자기관리습관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여기에는 어린이집 생활에 필요한 생활습관뿐만 아니라 가족생활 및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공공질서 지키기, 어른들께 존댓말쓰기와 같은 기본생활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한다. 따라서 가정과 연계하여 일관성 있고 자연스럽게 몸에 배이도록 부모와의 협력을 잘 이끌어내야 한다.

장애영유아에게 있어 기본생활습관 및 일과적응활동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기술이다. 특히 장애영유아는 신체적, 인지적으로 가지고 있는 제한 때문에 기본생활습관의 습득에 어려움을 갖는다. 장애영유아는 식사 배변 옷 입고 벗기 등과 같은 신변처리기술을

익히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하루일과 속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영유아 통합교육
3-9	일상적인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장애영유아의 개별 발달수준과 특성에 대한 정확한 교육진단 · 평가와 개별적 요구에 적절한 치료교육활동을 계획한다.

장애영유아 통합교육은 영유아시기에 가장 잘 받아들여지고,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물리적 통합만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다양한 교육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교사의 역할 모델과 일상적인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이 일반 영유아의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일반 영유아가 장애영유아에 대한 질문을 할 경우 교사는 이해하기 쉽고, 적절한 용어로 설명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말을 빨리 배우는 아이도 있지만, 늦게 배우는 아이도 있단다." "생각주머니가 달라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거야. 하지만 몇 번 더 얘기해 주면 알아들을 수 있을 거야." 등). 학기 초에 장애영유아의 부모를 초청하여 해당 장애영유아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거나 장애체험활동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장애영유아의 교육에 있어 개별화 교육프로그램은 매우 중요하다. 장애영유아는 개인 간 발달차가 크고, 개별 영유아 내에서도 발달영역간의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장애영유아의 특성과 개별적 차이를 고려하여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개별화 교육프로그램을 작성,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 발달영역별 현행수준과 장단기 교수 목표를 계획하고, 이를 하루 일과와 보·교육과정에 반영하며, 정기적인 평가를 해야 한다. 개별화 교육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개별화 교육프로그램 회의를 해야 하는데, 이때 원장 또는 교사대표, 담임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부모 등 장애영유아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각자 역할을 맡는다. 상호 교류와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신뢰와 존중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협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그 중에서도 가정과 터전의 연계는 특히 중요하다.

또한 장애영유아에게 필요한 경우 적절한 치료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면, 언어발달이 늦은 아동에게 언어적인 자극을 주고, 감각운동능력이 떨어지는 아동에게는 감각운동자극을 주며, 운동성이 지체된 장애영유아에게는 물리치료를 하여 지체된 부분을 자극하여 도움이 되도록 한다. 눈과 손의 협응 능력 및 소근육 운동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는 작업치료를 시행한다. 터전으로 치료사가 와서 치료교육을 실행할 수도 있고, 관련전문기관에 협조를 구하여 장애영유아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치료교육활동을 제공할 수도 있다.

나. 보·교육활동의 실행

보·교육활동의 실행은 일반적으로 계획안에 기초하여 일관성 있는 하루일과 흐름에 따라 이루어진다. 아동의 흥미와 자발성에 기초한 보·교육활동의 실행은 교육환경과 교육계획안을 통해 이러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후 교사의 통찰력 있는 운영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루일과 흐름은 영유아의 발달적 요구와 사회문화적 요구를 기초로 일관성을 가지고 운영해야 한다. 날씨, 계절, 터전환경 등을 고려한 대안을 마련해 놓고 큰 흐름을 놓치지 않는 선에서 융통성을 가지고 운영한다. 바뀐 일과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한 하루 일과시작 때 미리 영유아에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어 영유아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일과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다. 터전 내에는 기본적인 자유놀이 영역 및 활동을 갖추어 영유아의 흥미와 자발적인 놀이를 장려하고 확장해줄 필요가 있다. 자유놀이시간은 영유아에 대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운영하도록 한다.

장애영유아의 경우, 원활한 하루의 흐름을 위해 전이시간 전에 먼저 충분히 시간을 두고 준비하도록 해서 다른 영유아들이 기다리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1) 하루일과 구성과 흐름

어린이집 하루일과는 가정에서의 생활처럼 일련의 흐름을 타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매일의 일과가 규칙적인 리듬과 일관성을 가지고 진행된다면 영유아는 일어날 일과에 대한 예측을 하면서 하루 흐름에 보다 쉽게 합류할 수 있다. 일과표는 어린이집 전체 일과를 사진, 그림, 글씨 등을 이용해 영유아의 수준에 맞게 시각적으로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제시하여 영유아로 하여금 다음 활동을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주요한 일과 구성요소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10	등원 및 귀가
	영유아를 안전하게 맞이하고 귀가하도록 한다.

교사들은 등원과 귀가 시간을 일과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인식해야 한다. 등원은 일과와 별도로 생각될 수 있으나 영유아가 등원할 때의 건강 및 기분상태는 터전에서 생활하는 하루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때문에 교사나 또래 영유아들의 반가운 인사와 관심은 즐거운 기분으로 하루생활을 시작하도록 도울 수 있다. 특히 영아의 경우에는 아침에 맞이하는 교사가 자주 바뀌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이른 등원으로 잠이 덜 깬 영유아를 위한 휴식공간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귀가 시에도 영유아를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하면서 부모

에게 하루의 터전생활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전달하여 가정생활과 연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터전 내 모든 교사들이 등하원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아동의 인수인계기록부를 마련할 수도 있다. 인수인계기록부에는 등원과 관련하여 등원시간, 식사량, 인수인계자, 귀가시 인수예정자 등의 기록 란을 마련하고. 귀가와 관련하여 귀가시간, 인수인계자 등의 기록 란을 마련하여 부모가 간략히 기록하도록 한다.

3-11	아침열기
	영유아가 전체적인 일과의 흐름을 알고, 하루를 시작하도록 안내하는 시간이 있다.

아침열기는 교사와 영유아들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상호간에 마음과 몸을 가다듬는 중요한 시간이다. 영유아에게는 하루일과의 흐름과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여 마음의 준비를 하고, 동시에 예측이 가능한 가운데 안정감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시간이며, 교사에게는 영유아 개개인과의 정서적인 교감을 하고, 건강 등을 살펴서 계획대로 활동을 진행해도 되는지 점검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아침열기는 형태는 전체모둠과 방모둠이 있으며 전체모둠의 크기가 너무 클 경우에는 교사가 영유아 개개인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배려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방모둠을 하여 모둠크기를 작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시간에는 교사가 가능한 영유아들과 개인별 눈을 맞추며 인사를 하고 영유아들끼리도 인사를 할 기회를 준다. 또한 하루를 시작하는 정해진 노래를 부르기, 체조하기, 하루 일과에 대한 이야기, 나들이 장소, 오후 활동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생일잔치를 한다거나 그 날 만의 특별한 계획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다.

영유아들은 하루의 일상을 잘 지내기 위해서 아침열기 이전에 등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교사는 이러한 아침열기의 중요성을 부모들께 알려서 영유아가 이 시간까지 등원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해야 한다.

3-12	나들이
	주 3회 이상 2시간 전후의 나들이가 안전하고 짜임새 있게 이루어진다.

나들이는 햇볕과 바람, 주변에 핀 꽃이나 나무, 곤충 등의 자연과 지역사회의 건물,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등을 살펴볼 수 있게 하여 영유아들에게 재미있는 볼거리를 주고, 살아있는 체험학습 기회를 준다. 교사는 나들이가 영유아의 일상적 활동으로써 의미 있고, 교육적으로도 중요한 활동임을 인식해야 한다.

나들이를 갈 때에는 구급약, 물, 컵, 휴지, 돗자리, 수건, 물수건, 비닐봉투, 여벌 옷, 모자, 돋보기, 나들이 관찰 수첩, 필기도구 등의 준비물을 챙겨야 한다. 나들이와 관련된 동화나 그림책을 보여 주거나 지난 나들이 때의 활동과 장소의 특징을 소개하여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다. 그리고 교사와 영유아의 준비물 챙기기,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약속, 화장실을 가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간혹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에는 충분한 사전 계획 및 확인을 해야 한다.

나들이는 자연자원 자체에서의 오감활동, 수집한 자연물로서 하는 표현활동, 느낌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창의적 활동이므로 교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쉽게 답을 주거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피하고, 자연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충분히 자연을 만끽할 수 있도록 여유를 가져야 한다.

나들이를 통해 자신이 살고 있는 다양한 범위의 지역 생활환경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손을 잡고 가면서 나들이 활동과 관련된 노래 부르기, 만나는 사람들과 정답게 인사 나누기, 자연스럽게 발견하는 곤충과 꽃, 떨어진 나뭇잎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말고 잠깐 멈춰 서서 같이 느끼고 관찰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자연에서 감수성을 가질 수 있도록 느끼고 표현해 보는 연습을 한다. 이 때 교사는 영유아들의 표정변화, 감탄하는 말, 느낌 등을 사진이나 글로 담아 두는 일이 필요하다.

나들이에서 돌아와서는 수집해온 자연물을 확대해보기, 비교해보기, 모아서 꾸며보기, 소꿉놀이, 자연물을 이용한 놀이하기 등을 통해 자연에 대한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스스로 체득하도록 한다.

3-13	점심 및 간식
	즐겁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바른 식사습관을 익힌다.

점심식사 및 간식시간은 즐겁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식사양은 영유아 개별적인 특성 및 그날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조절하며 또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먹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바른 태도(앉아서 먹기, 도구사용하기, 골고루 맛있게 먹기, 즐거운 기분으로 먹기 등)를 가질 수 있도록 안내하고, 편식이나 음식흘리기, 묻히면서 먹어도 그대로를 인정하며 긍정적인 방법으로 습관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준다.

식사 중에도 영유아들의 말과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보이며 즐겁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영유아의 발달정도에 따라서 식사 전의 배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식사 후에 먹은 그릇을 정리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하고 영유아 스스로 할

수 있는 활동을 늘여나간다.

잘 먹지 않는 영유아의 경우에는 아침식사 및 간식의 양, 영유아의 개별적인 음식선호, 몸 상태 등에 대해 확인한 후 적절히 대처한다. 이럴 때에는 억지로 먹도록 하지 않는다.

식사량에 비해 에너지 소모가 많은 영유아이므로 영양과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식사 시간 사이 2시간 전후에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간식을 먹는다. 오전 간식은 영유아의 아침식사량에 따라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오후 간식은 낮잠시간 직후에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주는 것을 피하도록 한다.

3-14	낮잠 준비 및 낮잠
	2시간 전후의 낮잠시간이 마련된다.

영유아가 피곤해지면 짜증을 내거나 또래 사이에 다투기 쉽고 주어진 과제에 집중하기 어렵다. 또한 이때 안전사고가 날 확률도 높아진다. 따라서 일과 중 오후에 낮잠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며 영유아들이 편안하게 잠을 자거나 휴식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적인 특성상 혹은 건강상 잠이 쉽게 들지 못하는 영유아들도 있는데 이들에게도 누워서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조금 쉬다가 나와서 조용히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바람직한 낮잠 공간(보육환경 참조), 시간의 적절성(점심식사 1시간 이후, 하루 2시간 이내 권장) 등을 고려해야 한다. 낮잠전후 잠옷 갈아입고 벗기, 침구를 펴고 정리하는 일에 영유아들이 참여할 기회를 줌으로써 기본생활습관을 기를 수 있다.

낮잠을 잘 때 쉽게 잘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화장실도 미리 다녀오고 잠자기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으며, 커텐으로 채광을 가리고 조명은 끈다. 이때 개별적인 습관을 고려하며 잠이 일찍 들고 늦게 드는 아이, 조용히 자는 아이와 움직이면서 자는 아이 등 영유아간 서로 방해되지 않도록 교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 개별적으로 좋아하는 인형을 주거나, 토닥이기, 머리 쓰다듬기, 자장가 부르기 등을 통해서 긴장을 풀어주고 자연스럽게 잠이 들 수 있도록 한다.

잠은 자는 동안 가능하면 방을 비우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 자주 확인하여 영유아가 깨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한다. 잠에서 일찍 깬 영유아는 안아주거나 기분 좋은 느낌을 갖도록 친근한 신체접촉을 하는 등 관심을 가지고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발달 정도에 따라서 옷 입고 벗기, 이불정리하기, 베게 올려놓기 등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3-15	오후활동
	교사 주도 또는 영유아의 흥미에 따른 활동이 밀도 있게 이루어진다.

오후활동은 교사가 계획한 활동을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다. 그러나 교사가 계획한 활동이라 하더라도 영유아의 흥미와 요구를 고려하여 계획하고 융통성을 가지고 실행해야 한다.

이 시간은 교사의 계획과 준비에 따른 생태교육, 표현교육, 생활문화교육, 기본생활교육, 통합교육을 심도 있게 다루는 다양한 활동(나들이 연계활동, 텃밭활동, 극놀이, 모둠활동, 세시절기활동 등)을 공유하면서, 영유아들이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함께 논의해보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이 시간에는 보다 개별적인 유아의 흥미와 요구를 반영하는 주제풀이 활동을 계획할 수도 있다. 교사와 영유아들이 선정한 특정 주제에 대하여 영유아들 사이의 협력과 교사의 지원을 통하여 계획-실행-평가의 순환적 과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2) 자유놀이

'놀이는 아동의 일'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영유아의 삶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모든 영유아들의 권리이기도 하다. 최근 유아교육과정 재개념주의자들은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자유놀이가 자유놀이 본래의 의미를 상실한 채 교사중심의 접근으로 영유아의 자유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영유아를 담당하는 교사들은 놀이의 주체인 영유아가 생각하고 있는 자유놀이의 내용과 질, 의미, 내용, 맥락을 영유아의 시각에서 관찰하고 분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어린이집에서의 자유놀이는 유아와 성인이 함께 공동의 흥미에 기초하며 동시에 영유아의 현재 요구, 즉 영유아의 시간과 공간에 맞추도록 열려있어야 한다.

영유아들은 자신 및 또래들의 의도, 동기 등에 기초하여 주도권을 형성한 활동을 놀이로 생각하는 반면, 교사가 주도권을 가진 활동을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정리할 양이 많은 영역은 놀이시간이 짧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낀다. 때문에 교사들은 다양하고 자유로운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 공동육아에서는 나들이를 통해 유아들의 자유로운 시간과 공간에 대한 요구를 수용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터전 안에서도 놀이를 위한 시간과 공간을 배려한다면 터전생활이 보다 풍부한 놀이로 채워질 수 있다. 또한 터전 안에서 자유놀이 시간을 보다 풍성한 놀이로 만들어 주기 위해 교사는 평상시 관찰을 기초로 영유아들의 관심사를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자료와 환경을 다양하게 구성해줌으로써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한다. 놀이공간을 계획하고 꾸미는 일을 유아들과 직접 함께 한다면 유아들에게 그 공간은 더욱 의미 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

자유놀이시간에 장애영유아들은 자칫 혼자놀이에 빠져 있거나 놀이 상황에서 벗어나 방치된 채 지내기 쉽다. 따라서 교사는 장애영유아가 또래들과 함께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역할과 놀잇감을 제공하고, 적절한 중재, 개별적인 상호작용을 해주는 방식으로 장애영유아가 자신의 흥미나 요구, 능력에 맞는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다음에 제시되는 활동공간을 상시 구비해두면 영유아의 자유놀이가 보다 활발하고 풍성해질 수 있다.

3-16	언어놀이
	말과 글을 통한 의사소통놀이의 기회가 다양하게 제공된다.

영유아들이 자연스럽게 말과 글을 통한 소통의 기회를 넓혀가도록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놀이를 위한 공간을 상시적으로 마련해두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 스스로 선택하여 놀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책보기를 위한 편안하고 조용한 영역을 구성해준다면 즐거운 책읽기 기회를 제공해줄 것이다. 책표지가 전면으로 보이도록 도서진열대나 선반을 마련해둔다. 유아들과 책을 어떻게 전시하고 싶은지 의견을 나누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 계절과 관심사, 연령에 적합한 책들을 최소한 월 1회 정도 교체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작은 도서관 형식의 운영도 생각해볼 수 있다.

책보기 영역 옆에 읽은 책의 내용을 극화하여 표현해볼 수 있도록 작은 무대와 인형, 다양한 소품 등을 마련해준다면 영유아들은 책에서 읽은 이야기의 내용을 등장인물이 되어 실제처럼 표현해볼 수 있을 것이다.

간단한 쓰기도구가 마련된 글쓰기 영역과 함께 개인우편함을 만들어 둔다면 글을 쓸 수 있는 영유아뿐만 아니라 아직 글을 익히지 못하는 영유아들도 간단한 그림으로, 또는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쓴 글 등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즐거움을 가지면서 동시에 자연스럽게 글쓰기에 가까워질 수 있다. 또한 모둠을 통해서 정한 약속을 써 놓거나, 요일과 날짜를 유아 스스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신이 그리는 그림에 날짜나 이름을 쓰는 것, 짝패를 위한 카드 등을 통해 유아는 자연스럽게 읽기와 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다.

3-17	역할 및 쌓기놀이
	다양한 종류의 역할 및 쌓기놀이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쌓기놀이는 영유아가 매우 즐겨 하는 놀이 중 하나이다.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쌓기 놀잇감을 상시 마련해주면 영유아들은 다양한 구성물을 만들며 자기 주변의 공간을 다루는 즐거

움을 누릴 수 있다.

극놀이 무대와 별도로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경험해볼 수 있는 역할놀이를 위한 공간과 소품들을 준비해 준다. 역할 놀이를 위한 소품들은 영유아의 관심역할 변화에 따라 교체해 준다. 영유아기는 가정생활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큰 시기이니 만큼 자연물 소재나 실물을 활용한 소꿉 놀잇감과 봉제인형 등을 상시 구비해둔다. 눈, 코, 입이 없는 수제인형이나 천연염색한 다양한 색과 크기의 조각천은 유아의 상상력을 자극하면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쌓기영역과 역할놀이 영역을 가까이에 준비해주면 쌓기놀이 자료를 활용한 역할놀이가 더욱 활발하고 풍부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남아와 여아가 성별에 구애 없이 함께 놀도록 장려할 수 있다.

3-18	수작업 놀이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손을 사용하는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진다.

손을 사용하는 다양한 활동을 위한 공간도 필요하다. 예로, 큰 아이들의 경우 직조, 털공 만들기, 실뜨기, 칠교놀이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며, 영아의 경우 콩 줍기, 점토 주무르기 놀이, 풀물감 놀이, 찢기 놀이, 구기기 등 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오후활동시간에 활동을 소개한 후 이 공간에 자료를 마련해두고 개별적으로 다시 경험해보도록 하는 것도 좋다. 한 번에 2~3개의 활동자료를 준비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영유아들의 흥미를 관찰하면서 바꾸어 주는 것이 좋다.

3-19	표현놀이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표현놀이를 한다.

자유놀이를 위한 공간과 시간에는 교사 주도로 이루어지는 표현활동보다 아동이 주제나 재료, 표현방법 등을 스스로 선택하여 만들어내는 표현놀이를 장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현놀이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영유아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미술재료, 수집 건조시킨 자연물, 폐품, 여러 가지 색의 보자기, 스카프, 리본 테이프 등 다양한 재료를 종류별로 정리해서 구비해두고 교사는 영유아가 하는 활동을 관찰하면서 영유아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해낼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역 4] 상호작용

공동육아는 다양한 관계를 중요한 교육적 요소로 생각한다. 관계란 다양한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상호작용의 내용과 질은 관계의 질을 좌우한다.

공동육아는 반일제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맞벌이하는 부모의 자녀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영유아는 부모가 출근함과 동시에 등원하여 퇴근해서 귀가할 때까지 거의 하루종일 다른 영유아들과 교사와 함께 어린이집에서 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교사는 영유아의 일상적인 양육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개별적인 특성을 이해하게 되고 적절한 교사의 행동과 태도는 영유아에게 기본적인 신뢰감과 자존감을 향상시킨다. 이 시기에 형성되는 신뢰감과 자존감은 이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교사는 긍정적이고 일관된 태도로 영유아를 돌보며 영유아의 개별적인 정서를 배려해야 한다.

또한 교사가 영유아의 개별적 특성과 영유아가 속한 가족의 문화에 대하여 이해하고 공감할 때, 영유아는 자신이 더욱 소중한 존재라고 느낀다. 공동육아는 교사와 부모의 교류가 활발하기 때문에 교사가 영유아의 가족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영유아에 대한 평등한 대우
4-1	영유아의 성별, 외모, 발달적 지체 여부, 사회경제적 배경, 종교 등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대한다.

공동육아에서는 구성원들의 평등한 관계를 위해 반말문화와 통합교육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그리고 여기에서 '평등'이란 절대적 평등이나 수치적 평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영유아는 성별, 외모, 발달적 지체 여부, 사회경제적 배경, 종교 등에 관계없이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이는 영유아가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기초가 된다. 교사는 사용하는 말과 교재교구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편견과 기회의 불평등이 없도록 검토해야 한다. 가능한 반편견 교재를 사용하고, 전통적인 남녀 역할에 따라 놀잇감과 놀이를 구분하지 않으며 칭찬의 기준도 성별에 따라 다르지 않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교사는 영유아의 성별, 장애에 관계없이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주며 영유아의 외모, 키, 몸무게, 피부색, 장애 등이 놀림이나 거부의 이유가 되지 않도록 약속을 정하고 이를 지킬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종교나 사회경제적 배경, 한부모가족이나 입양가족과 같은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긍정적으로 이야기함으로써 영유아들이 '다양함'의 가치를 알고, 서로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영유아 가족의 문화적 전통을 존중하는 것이 영유아가 긍정적인 자아감을 형성하는데 영

향을 미치므로, 긍정적인 자아감의 형성을 위해서는 영유아기 때부터 다른 사람의 견해나 경험이 나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수용하고 배우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때 주의할 것은 교사는 자신의 특정하고 보편적이지 않은 종교적 신념이 영유아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2	영유아의 요구와 질문에 대한 반응
	영유아의 요구와 질문에 주의를 기울이고 경청하며 공감하여 반응한다.

영유아는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고,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왕성하여 질문과 요구가 많다. 이러한 영유아에게 주변을 탐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고, 영유아의 질문에 공감하여 적절히 반응하는 것이 교사의 중요한 역할이다.

먼저 교사는 영유아가 자유롭게 자신의 요구를 표현하고, 궁금할 때 질문할 수 있도록 허용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어야 한다. 그리고 영유아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영유아의 행동이나 표현을 관찰하여,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적절하게 반응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영유아의 요구와 질문에 대한 적절한 반응은 영유아의 나이에 따라 다르다. 대부분의 어린 영아들은 언어사용이 불완전하여 몸이 아프거나 불안할 때, 또는 갈등상황에서 불만이나 짜증이 날 때는 부정적인 정서로 표현을 하므로 교사는 영아의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을 알고 불편함을 호소하는 영아를 공감하고 편안하게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좀 더 큰 유아의 질문에는 주의 깊게 경청하고 함께 해답을 찾아보거나, 드러나지 않는 유아의 의도나 감정을 고려하여 공감적인 반응해주어야 한다.

집단생활 속에서 영유아가 교사의 반응을 기다리는 것이 불가피할 경우도 있지만 기다리는 시간을 가능한 최소로 줄여야 한다.

4-3	영유아를 존중하는 말과 행동
	개별 영유아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눈을 맞추면서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한다.

교사의 따뜻하고 친절한 말과 행동은 영유아의 자아존중감을 높여주고, 다른 사람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데 도움을 준다.

교사는 영유아에게 관심을 가지고 개인적 흥미를 존중하며, 친밀한 태도로 대하고 대화를 자주 해야 한다. 특히 영아의 불완전한 말을 이해하기 위해 교사는 영아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은 물론이고, 타고난 기질을 파악하여 상호작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사는 영유아의 발달 수준에 맞는 명확한 단어와 단순하고 명료한 문장을 사용하고, 대화는 주로 영유아가 직접 경험한 것, 관심을 갖는 물건이나 놀잇감, 주변의 주요인물인 가족

이나 친구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중심으로 나누어야 한다. 그리고 대화를 할 때는 교사의 의도대로 이끌기보다 영유아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기회를 주고 더 나아가 영유아간 의견을 활발히 교환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교사는 친밀한 태도로 영유아를 안아주거나 다양한 접촉을 통하여 애정을 표시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드럽게 이름을 불러준다. 어린이집에 오고 갈 때, 점심 먹을 때, 화장실에 갈 때에도 자주 영유아와 눈을 맞추고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를 해야 한다.

영유아와 수평적 관계를 지향하기 위해 시도된 별칭과 반말 사용으로 교사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데, 이때에도 영유아의 느낌을 살피고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4-4	**긍정적인 방법의 행동 지도**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행동을 지도하고, 부정적 방법으로 지도하지 않는다.

영유아의 행동에 대해 긍정적인 방법으로 행동을 지도하는 것은 영유아의 자존감을 키우는데 매우 중요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습득하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의 예로는 긍정적 언어로 표현하기, 바람직한 행동 제안하기, 약속을 정하고 지키기, 교사의 모범 보여주기 등이 있으며, 부정적 방법은 무시하기, 소리치기, 벌세우기, 체벌 등이 포함된다.

영유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영유아의 개인적인 발달특징, 어린이집의 공간 및 시간의 구성, 교사와 또래의 행동과 말, 그리고 가정 배경 등이 있는데, 교사는 이러한 요소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고려하며, 단순히 가르치려하기보다는 놀이와 상호작용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사는 영유아와 간단한 규칙을 함께 정하기, 규칙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영유아와 이야기하기, 자율적인 행동을 칭찬하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 지 추측하기 등 사회적인 공감대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주기, 갈등 상황에서는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고 모범보이기 등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게 한다. 영유아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 반복될 때에는 부모와 협의하여 행동이 일어난 배경을 파악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지도한다.

4-5	**영유아간 긍정적 상호작용의 격려**
	영유아간 긍정적 상호작용을 격려한다.

영유아기는 영유아간 긍정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친사회적 행동을 배울 수 있는 시기이다.

교사는 영유아의 사회적 행동의 발달적 수준을 이해하고 이에 적절하게 개입하여 긍정적 상호작용으로 이끌며, 긍정적 상호작용이 일어났을 때에는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사회적 행동을 습득, 강화시키며, 다른 영유아들과 상호작용 속에서 또래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회적 기술들을 익히도록 한다.

교사는 영유아간 서로 도와주기, 놀잇감 나누어 쓰기, 또래에게 관심 갖기나 긍정적인 정서표현하기(웃기, 껴안기, 즐거운 목소리로 말하기, 자신이 만든 작품이나 편지 주고받기) 등에 대한 행동을 자주 격려해주어야 한다. 또한 영유아간 친밀감을 느끼고 친구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특히 장애영유아는 또래와 상호작용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사회적 행동을 할 기회를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특별히 계획된 시간에 교사가 의도적으로 할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면서 적절한 언어적, 행동적 모델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일상생활에 속하는 간식이나 점심먹기, 화장실가기, 실내외 놀이 등 여러 상황을 잘 이용하여 또래와 상호작용할 기회를 만들어, 친사회적 행동을 배울 수 있도록 한다.

4-6	영유아 놀이에 교사참여
	영유아의 놀이를 주의 깊게 관찰하며 자연스럽게 함께 놀며, 놀이를 지원, 활성화한다.

공동육아에서 영유아들은 어린이집 실내에서 뿐만 아니라 마당과 나들이 장소에서 다양한 놀이를 주도적으로 한다. 영유아는 놀면서 배우기 때문에 교사의 주의 깊은 관찰과 참여가 필수적이다. 영유아의 놀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고, 상상놀이를 활발히 할 수 있는 놀잇감을 제공하여 또래들과 다양하고 활발하게 놀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사는 영유아들의 놀이를 관찰하고 놀이유지, 제안, 지지, 확장시켜 주어야 한다. 교사의 참여가 필요한 때는 놀이가 단순히 반복되어 흥미를 잃게 될 때, 다른 놀잇감이 필요할 때, 또는 놀이친구가 필요할 때 등이다. 이럴 때 교사는 놀이 상대로 조심스럽게 참여하거나 놀잇감이나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놀이를 유지하고 확장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하며 영유아들에게 의미 있는 배움과 발견이 이루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때에 교사는 영유아들의 개성이나 특성에 대해서 잘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때로는 놀기 싫어하는 영유아의 정서를 보살피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교사가 영유아의 놀이에 항상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영유아의 연령과 놀이 종류에 따라 교사의 참여가 효과적이지 않을 때도 있으므로 놀이의 흐름에 주의를 기울이고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4-7	영유아의 부정적 정서 수용
	영유아가 부정적인 정서를 보일 때 이를 수용적인 태도로 공감하고 보살핀다.

어린이집에서 영유아가 항상 만족스럽고 편안함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영유아의 부정적인 정서에 교사가 적절히 반응하려면 주의 깊은 관찰이 요구된다. 영유가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지 아니면 부정적인 정서가 지속되고 있는지 등 세심히 살펴야 한다.

영유아의 부정적인 정서는 건강이나 생리적으로 불편할 때, 심리적으로 불안할 때, 또래 간 문제로 화나거나 좌절감을 느낄 때, 발달단계의 특징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으며, 때로는 집에서부터 가져온 정서도 있을 수 있으므로 원인에 대한 이해를 해야 한다.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할 때는 먼저 부정적인 정서를 인정하고 수용적인 태도로 공감해야 하며, 이후 그러한 부정적인 정서가 전환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그리고 자신이나 다른 영유아를 위험하게 하는 행동이나 공격적인 태도를 보일 때는 재빨리 개입하여 보호해야 하며 이후 긍정적인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영유아가 느끼는 감정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울거나 화내고 불안해할 때, 이를 다 받아주면 영유아의 그러한 성향이 더 강화되는 것을 걱정하는 교사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교사가 영유아의 이러한 부정적 정서를 인정하고, 수용하며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따뜻하게 감싸주면 영유아는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고, 어린이집 생활에 잘 적응하게 된다. 영유아의 정서적 안정은 정서발달 뿐만 아니라 또래 관계의 형성이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영유아의 부정적 정서를 수용하는 것과 더불어 긍정적인 정서를 나타낼 때도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며, 부정적인 정서가 오래갈 때는 교사회의, 대상 영유아의 부모상담을 통해서 영유아를 도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4-8	영유아 간의 다툼이나 문제 상황 개입
	영유아간의 다툼이나 문제 상황에 적절하게 개입하여 해결하도록 돕는다.

영유아 간에 다툼이나 문제가 생길 때, 교사는 영유아간의 문제를 대신하여 해결해주기보다 영유아가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도 안정된 감정을 유지할 수 있어야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영유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영유아간에 자율적 해결이 어려울 경우 교사는 적절하게 개입하여 문제의 해결을 도와주어야 한다. 예를 들면, 영유아간에 갈등상황이 심할 때는 대상자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영유아의 격한 마음이 진정되거나 울음을 그칠 때까지 공감하

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상대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며, 서로 상대의 마음을 추측하여 감정에 공감하기, 문제행동에 대한 결과 예측하기, 갈등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제안하기 등을 통해서 교사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서 교사는 영유아간 갈등이나 문제 상황을 학습과 배움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하고, 영유아간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특히 장애 영유아는 자신의 요구를 적절한 언어나 동작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친사회적 행동을 자연스럽게 배우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다툼이나 문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교사는 장애영유아의 문제행동에 관해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효율적인 지도방법을 찾고, 행동지원계획을 실행해야 한다. 교사의 수나 집단의 변화, 난이도 변화 등의 조건을 변화시켜서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장애영유아가 처한 사회적 상황(다른 아동으로부터의 신체적 공격, 장난감 쟁탈, 또래로부터의 다양한 요구)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한다.

[영역 5] 건강과 위생

영유아기는 인간의 성장발달에 기초가 되는 시기이므로 어린이집에서는 성장발달에 필요한 영양소가 고루 포함된 양질의 식사와 간식을 제공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영유아는 면역력이 취약하여 각종 질병에 쉽게 노출되기 쉬우므로 어린이집 안팎의 청결을 유지하고 건강과 영양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건강한 생활습관을 익히게 한다. 또한 많은 영유아들이 생활하는 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전염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위생시설을 구비하고 전염성 질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

가. 청결과 위생

5-1	**실내외 공간의 청결 유지**
	어린이집의 실내외 공간이 청결하다

어린이집에서는 개별 영유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실내외 공간의 청결을 유지한다. 각 방, 현관, 복도, 교사실, 자료실 등을 매일 청소하고 한 달에 1회의 정기적인 소독 및 대청소를 실시하여 청결은 물론 혹시 있을 지도 모르는 해충이나 세균의 번식을 예방한다. 계단, 현관, 통로 등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곳이나 창문, 창틀, 벽면, 구석진 곳 일수록 세심하게 살펴서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마당이나 대문 앞, 어린이집 담장 밑 등 실외 공간도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여 소홀함이 없게 한다. 청소용 걸레나 도구는 삶거나 소독한 후

햇빛에 말려서 사용하며 일정한 장소에 정돈하여 보관한다. 또 여름방학 등을 이용하여 연 1회 이상 방충, 방역, 나무 가지치기 작업 등을 하여 청결한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5-2	실내의 환기와 온도 및 습도의 조절
	실내의 환기를 자주 하고, 온도와 습도를 적절하게 조절한다.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들이 흔히 걸리기 쉬운 감기와 같은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환기와 온도, 습도조절에 유의한다. 교사는 영유아들이 생활하는 방에 항상 신선한 공기가 유입될 수 있도록 수시로 환기를 해야 한다. 특히 실내놀이 후나 식사시간 후, 낮잠시간 후, 추위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서 생활하기 쉬운 겨울철에는 각별이 환기에 주의하며, 날씨와 하루일과에 따라 습도(60%~70%)와 온도(섭씨 18도~22도)를 적절하게 조절한다. 환기를 할 때는 출입문과 창문을 같이 열어서 탁한 공기를 없애고 방안에서 냄새가 나지 않게 한다. 자주 사용하지 않는 자료실이나 창고 등도 주기적으로 환기를 하여 교재교구나 비품 등에서 발생하는 냄새와 습기를 방지한다. 습도조절을 위해서 숯, 어항, 가습기 등을 적절하게 활용하며 에어컨, 공기정화기, 가습기를 사용할 경우 주기적으로 필터와 수질을 관리한다.

5-3	화장실 및 세면장의 청결유지
	화장실 및 세면장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한다.

세면장과 화장실은 영유아가 수시로 이용하는 곳이므로 매일 청소와 소독을 실시함은 물론 일과 중에도 자주 청결 상태를 점검한다. 화장실과 세면장의 바닥은 물기가 없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오염을 방지한다. 수건은 젖으면 바로 교체하고 마른 수건과 비누, 휴지 등을 항상 비치하며 모자라는 물품이 없게 한다. 칫솔은 칫솔 소독기, 또는 건조하고 청결한 곳에 보관하며 하나의 용기에 여러 개의 칫솔을 함께 보관하지 않는다. 양치용 컵은 소독이 용이한 스테인리스 재질의 개인용 컵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기적으로 끓는 물에 삶거나 소독한다.

영아용 이동식 변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사용 후 바로 오물을 버리고 세척한다. 영아를 위한 기저귀 갈기 및 씻는 공간은 영아의 건강과 위생에 직결되는 곳이므로 청결하게 하며 물수건, 지저귀, 방수요, 위생장갑, 소독액 등의 물품을 항상 구비한다. 기저귀 갈이대의 경우, 영아가 기저귀를 갈 때마다 오물이 묻을 수 있으므로 자주 닦고 소독하여 세균감염을 막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다. 또 오물이나 세균이 교사의 손을 통하여 다른 영유아나 교사에게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사용한 기저귀나 일회용 장갑, 물휴지 등은 위생적으로 처리한 후 뚜껑이 밀폐된 쓰레기통에 버리고 자주 비우며 환기를 하여 악취가 나지 않게 한다.

5-4	주방과 식자재의 위생적 관리
	주방과 급식 설비, 식기류, 배식관리를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주방은 식사와 간식이 준비되는 곳이므로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 식중독과 질병을 예방한다. 주방은 매일 청소와 소독을 하고, 자주 환기를 한다. 냉장고와 조리대, 건조대 및 식기 칼, 행주, 도마 등과 같은 조리 도구를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도마와 칼은 육류, 어류, 야채류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재료는 신선한 것을 구입하여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며 식재료 종류에 따른 보관요령을 준수한다. 남는 음식은 반드시 폐기하도록 하며 쉽게 변할 수 있는 음식이 장시간 상온에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음식을 배식할 때는 1회용 장갑 또는 집게 등을 사용하여 위생적인 배식을 한다. 조리사는 앞치마와 위생모, 머릿수건을 착용해야 한다.

5-5	마실 물과 물 컵의 관리
	마실 물이 항상 위생적으로 준비되어 있으며 물 컵을 청결하게 관리한다.

어린이집에서 마실 물을 제대로 관리한다는 것은 물로 인한 수인성 질환을 예방할 뿐 아니라 영유아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이다. 영유아들이 원할 때에는 언제나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깨끗한 생수나 끓인 물을 위생적인 용기에 담아서 이용하기 쉬운 곳에 준비해둔다. 정수기를 사용할 경우 정기적으로 청소하여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인 상태를 유지한다. 영유아가 사용하는 물 컵은 소독이 용이한 스테인리스 컵이 좋으며 사용 전 컵과 사용한 후의 컵을 분리한다. 한번 사용한 컵은 깨끗이 씻은 후 식기소독기나 먼지나 습기가 없는 청결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나들이를 갈 때는 개인용 컵과 물통을 지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아의 경우 우유병이나 빨대가 달린 개인용 컵을 청결하게 관리한다. 모유, 또는 우유가 위생적으로 보관되지 않거나 우유병, 젖꼭지 등이 청결하게 관리되지 못했을 경우 배탈, 설사, 구내염 등의 전염성질병에 감염되기 쉽다. 모유나 우유 또는 우유병을 꼭 냉장고에 보관하고 분유는 습기가 차지 않게 보관하며 냉장 보관한 우유를 데워 먹일 수 있는 도구를 준비한다. 먹다 남은 우유는 바로 버리며, 우유병과 젖꼭지는 청결하게 관리하고 사용한 후 반드시 소독한다. 소독된 우유병은 부모에게 매일 여러 개를 가져오게 할 수도 있다.

5-6	교사와 영유아의 손 씻기
	교사와 영유아는 위생과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배변지도 후, 음식을 다루기 전, 실외 활동 후 반드시 손을 씻는다.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들이 놀잇감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나들이 등 실외놀이를 통해 손이 더러워지고 각종 세균 등에 감염되기 쉽다. 따라서 영유아들이 자주 손을 씻어서 각 종 전염성 질환을 예방하고 위생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화장실 이용 후, 나들이 등 실외 놀이 후, 식사나 간식 전 후 등에 반드시 손을 씻도록 교육하며 일과 중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안내한다. 특히 교사는 자주 손을 씻어서 영유아를 위생적으로 보살피고 전염성 질환을 예방할 뿐 아니라 생활 습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5-7	개별 침구의 사용과 관리
	영유아는 개별 침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침구를 자주 세탁하여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다.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의 성장과 건강을 위하여 휴식을 취하거나 낮잠을 자게 된다. 이때 사용하는 침구는 개별 침구를 사용하여 세균이 전염되는 것을 막는 것이 좋다. 어린이집의 여건상 부득이하게 공동침구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도 베게와 이불은 개별 침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단체로 맞춘 침구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름을 표시해서 개별 아동의 것을 구분 해준다. 침구는 땀과 침, 오줌 등으로 인해 쉽게 더러워지고 냄새가 나기 쉬우므로 더러워지면 바로 침구를 교체해주고 자주 일광소독을 하며,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세탁을 해야 한다. 침구는 별도의 이불장이나 이불커버 등을 마련하여 청결하게 보관한다.

5-8	놀잇감의 청결
	놀잇감은 청결하고 정기적으로 세척한다.

영유아가 매일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잇감은 항상 청결하게 하여 영유아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한다. 영유아가 자주 사용하는 인형, 보자기, 끈 등은 자주 빨아서 청결하게 하고 나무로 만든 놀잇감이나 플라스틱 장난감 등도 연 3회 이상 세척하여 청결상태를 유지한다. 특히 영아가 입에 넣기 쉬운 놀잇감은 매일 세척한다. 마당에서 사용하는 미끄럼 등과 같은 놀이기구나 놀잇감 역시 주기적으로 세척하여 깨끗하게 한다. 세척하기 곤란한 나무 놀잇감 등은 햇볕에 일광소독하거나 소독액 등으로 닦아준다.

나. 건강과 영양

5-9	기본적인 건강관리 지도
	일상적인 손씻기, 식사 후에 잇솔질, 날씨에 맞게 옷입기와 모자쓰기, 장갑끼기 등을 연령에 맞게 돌보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영유아들은 등원하여 귀가할 때까지 하루 종일 어린이집에 있으면서 생활한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건강관리와 그와 관련한 습관들을 익히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중요하다.

특히 공동육아는 나들이나 마당놀이 등 실외활동이 많은데, 실외활등을 할 때 계절이나 날씨에 적합한 복장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적절한 복장(의복, 모자, 신, 장갑 등)은 체온을 유지시키고, 외부로부터 몸을 보호하며 건강한 몸을 유지하게 해준다. 혹시 영유아들이 잘 챙기지 못할 때는 교사가 복장에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야 한다.

5-10	전염성 질환에 대한 예방 및 관리대책
	영유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부모에게 알린다.

영유아기는 각종 전염성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약한 시기이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또는 교사, 조리사 등이 전염성 질병에 걸렸을 경우 다른 영유아들에게 쉽게 전염되기 쉽다. 그러므로 어린이집에서는 각종 전염성 질환에 대한 예방 및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사전에 부모들에게 충분히 공지하여 전염성질환이 확대될 수 있는 사태를 예방하며 혼란이 없도록 한다. 이외에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에게 자주 발생하는 전염성 질환과 각종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부모들에게 제공하여 어린이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영유아들이나 교사 등이 전염성 질환에 감염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휴원, 휴직하도록 한다.

5-11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에 대한 보호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를 위한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시행한다.

어린이집에서 종일 생활하다보면 몸이 아프거나 다치는 영유아들이 종종 있게 마련이다.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가 몸이 아프거나 다칠 경우를 대비해서 적절한 보호절차를 준비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영유아가 몸이 아픈 경우 휴식공간이나 조용한 곳에서 보호하며 안정을 취할 수 있게 돌본다. 몹시 아픈 경우에는 영유아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조치

를 취해야 함은 물론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비상약품은 항상 구비해야 하며 영유아에게 투약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문서 혹은 게시판 등을 준비하여 투약시간, 투약용량, 투약자 이름 등 투약 의뢰에 관한 사항과 투약에 대한 사항을 확인한다. 약을 주고받을 때는 부모와 교사가 직접 주고받도록 하며 약은 냉장고 등 약 성분에 따라 적절한 곳에 보관하고 영유아가 함부로 만지지 않게 한다. 또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를 위한 건강보고서를 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12	영유아와 종사자의 건강관리
	모든 영유아와 종사자는 정기적 건강검진과 체계적인 관리를 한다.

어린이집의 모든 영유아와 종사자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 질병에 대한 감염을 예방하며 질병의 치료를 위한 적절한 조치 등 체계적인 관리를 한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에서는 연1회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검진에 대한 서류를 마련하여 보관한다. 건강검진 항목에는 간염, 결핵 등 각종 전염성 질환에 대한 감염 여부 및 영유아의 치아검사, 청력검사 등의 항목을 반드시 포함한다. 건강검진 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영유아는 학부모와 상의하여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며 전염성 질환에 걸렸거나 의심되는 영유아나 종사자는 어린이집에서 격리하여 치료를 받도록 한다. 어린이집에서는 키, 가슴둘레 등 신체발달을 확인할 수 있는 신체계측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건강검진에서 누락되는 신입 영유아나 종사자의 경우 추가로 건강검진을 하며 이에 대한 기록 또한 보관한다. 어린이집에서 신규로 종사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채용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5-13	영유아를 위한 먹거리
	먹거리는 영양의 조화를 이루고 영유아의 발달단계에 맞게 소화가 잘되는 자연식으로 조리하여 제공한다.

영유아기는 인간의 생애에서 가장 급속한 성장과 발달이 이뤄지는 시기로, 영양이 풍부하고 다양한 먹거리로 조리된 균형 잡힌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영유아의 건강과 신체발달에 필수적인 일이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에서는 채소, 육류, 과일 등 화학첨가물이 가미되지 않은 신선한 친환경 먹거리를 골고루 이용하여 영유아의 발달과 성장에 필요한 체계적이고 건강한 자연식 식단을 제공한다. 식품을 조리할 때는 영유아가 즐겁고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조리하여 영유아의 편식을 방지하고 영양의 균형을 유지한 식사를 할 수 있게 한다. 영유아의 건강을 위하여 지나치게 당도가 높은 식품이나 너무 짜거나 매운 음식 등 자극성이 강한 식품, 화학조미료가 들어간 식품 등의 조리는 피해야 하며 인스턴트식품

의 사용은 최소화한다.

식단은 영양사가 작성하거나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작성하여 공지하고 1일 2회의 간식과 점심에 나오는 음식의 종류와 조리방법이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간식은 소화가 잘되어 식사에 방해되지 않은 것으로 하며 오전 간식은 조리시간이 짧고 간편하면서 포만감이 적은 것이 좋으며 오후 간식은 귀가 후 저녁식사 시간 사이의 허기를 채워 줄 수 있도록 약간의 포만감을 줄 수 있는 것이 적합하다. 점심은 밥과 국 또는 찌개, 단백질 종류 반찬 1가지, 채소류 반찬 1~2가지 정도로 구성하여 제공하는 것이 좋으며 제철 식품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영아의 경우에는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의 형태나 맛, 크기 등도 조절하여 제공한다.

[영역 6. 안전]

어린이집의 안전은 장애영유아를 포함한 모든 영유아들이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보호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건강한 신체를 발달시키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다. 안전관리는 영유아 주변의 인적, 물적인 환경을 포함하며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실내외 시설의 설치와 관리를 말한다. 또한 관련설비의 사용방법 준수,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수칙마련, 등원부터 하원 할 때까지 영유아 보호 관리와 교육 등을 포괄하는 것이다. 어린이집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할 수칙이나 대비책은 문서로 작성하여 전체 종사자들이 숙지한다. 영유아의 안전과 보호를 늘 세심하게 관리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한다.

가. 실내외 안전관리

6-1	**실외시설의 안전관리**
	실외시설과 설비가 관련규정에 따라 안전하며 정기 안전점검을 통해 적절히 보수한다.

실외시설과 설비는 어린이집 건물 외부에 설치된 모래밭 등을 포함한 모든 놀이기구와 담장 등을 포함한 부대시설을 말한다. 실외시설과 설비는 영유아의 발달과정과 특성에 알맞은 것으로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검사를 필한 제품을 설치하며 수시로 점검을 하여 안전여부를 확인한다. 영유아가 추락할 가능성이 있는 그네, 시소, 미끄럼틀 등은 아래와 주변에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모래나 안전장치를 구비한다. 모든 놀이기구는 날카롭거나 모서리가 뾰족한 곳이 없도록 하여 영유아가 다치지 않게 한다. 놀이시설물에 영유

아의 몸이 끼거나 빠지는 곳은 없는지 살피고, 위험한 곳에는 반드시 난간이나 안전망 등을 설치하여 위험요소를 없앤다. 수리를 필요로 하는 놀이기구는 될 수 있는 한 고장 즉시 수리하며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영유아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실외 놀이도구나 텃밭도구들이 있는 경우 이를 정리하는 보관함이 마련되어야 한다.

모래밭은 주변의 지면보다 낮은 것이 모래를 보관하기에 수월하다. 모래밭에는 모래덮개를 구비하고 수시로 유리조각, 돌멩이, 오물 등과 같은 위험물질을 제거하고,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교체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모래덮개는 어린이집 개방시간과 함께 열어줘야 한다. 마당에는 더러운 물이나 빗물이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배수구를 설치한다.

6-2	실내시설의 안전관리
	실내시설은 관련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설치하고 정기점검을 통해 적절히 보수한다.

영유아가 어린이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실내 공간이다. 어린이집의 실내시설과 설비는 관련규정에 따라 설치하여 영유아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 어린이집은 장애영유아를 포함한 모든 어린이가 이동하기 쉽고 접근 가능할 수 있도록 가급적 모든 출입구 부분에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면의 높이 차이가 없게 하며 계단 벽에 보조지지대나 안전봉 등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상구를 제외한 모든 출입문은 안쪽에서 잠길 우려가 없어야 하며 밖에서도 쉽게 열 수 있어야 한다. 출입문 및 창문의 가장자리에는 영유아의 손이 끼지 않도록 손 끼임 방지 장치를 설치한다. 창에는 창문 보호대나 난간을 반드시 설치하며 난간의 한쪽은 비상시에 대피할 수 있도록 개폐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육시설의 내부(벽, 천장 등)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의 규칙에 따라 불연재, 준 불연재 혹은 난 불연재로 설치하며 커튼 및 카펫 등은 방염성능을 갖춘 것을 구비한다. 돌출형 라디에이터, 난로 등을 비롯한 온열기는 영유아의 몸이 직접 닿지 않도록 울타리나 적절한 보호 장치를 설치한다. 보일러 설비, 두꺼비집, 화기, 안전덮개가 없는 콘센트 등은 각기 적절한 안전설비를 갖추고 책상, 의자, 책꽂이등 가구의 모서리와 표면은 둥글고 매끄럽게 처리하거나 고무 등으로 모서리에 보호 장치를 설치한다. 교구장, 수납장 등은 안전을 위해 아래쪽에 무거운 물건을 보관하고 선반에는 물건이 떨어지지 않게 안전설비를 한다. 거울은 깨지지 않는 안전거울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스나 전기는 안전을 위해 가스안전 차단기나 누전 차단기 등을 설치한다.

화장실이나 세면장의 바닥은 미끄럼 방지 장치 및 바닥 난방장치가 필요하며 온수를 사용할 때 화상을 방지하기 위해 수도꼭지에 온도고정 장치를 하는 것이 좋다. 또 변기나 세면기의 높이도 다양하게 설치하여 영유아의 발달수준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게 하는 것이 좋으나 여건이 구비되지 않을 경우 안전 발판 등을 이용하여 영유아가 사용할 때 불편함이

없게 한다. 또 장애영유아가 사용하기 편한 위치에 수건이나 옷걸이, 안전봉 등을 설치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영유아가 요리활동 등의 이유로 주방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교사 등 성인의 관리 감독 하에 이용하도록 하며, 조리용렌지를 비롯하여 뜨거운 국그릇이나 밥솥 등 주방용 기기나 주방용품을 함부로 영유아가 만지지 않도록 안전수칙을 교육한다. 계단은 미끄럼 방지 턱과 안전봉 등을 설치하여 영유아들이 안전하게 오르내리게 하며 조명을 밝게 한다. 정기적으로 실내시설, 설비가 안전한지 점검하고 수리가 필요한 경우는 수리가 끝날 때까지 사용불가 표시를 한 후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수리한다.

6-3	각방의 실내설비와 놀잇감의 안전관리
	각 방의 실내설비와 놀잇감에 위험요소가 없으며 안전과 파손여부를 매일 점검한다.

영유아가 매일 사용하는 각 방은 안전하고 위험요소가 없어야 한다. 각방의 설비와 놀잇감은 영유아의 발달적 특성에 맞는 안전하고 환경오염을 야기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영유아들이 삼키기 쉽거나 유해한 색소 등이 함유된 놀잇감이나 설비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각 방의 교사들은 실내 설비와 놀잇감을 매일 점검하여 위험요소가 발견되거나 파손 된 것은 즉시 수리, 보완한다. 각 방은 적절한 냉난방시설을 갖추고 환기, 채광, 조명, 온도와 습도를 적절히 관리하며 영유아가 활동하기에 적합한 크기를(영유아 1인당 2,64㎡) 확보한다.

교구장이나 사물함은 영유아의 키 높이에 맞는 것을 구비하고 적절한 양의 교구를 비치하여 영유아들이 쉽게 꺼내고 정리하게 한다. 보육실이 좁을 경우 사물함 등을 넓은 거실이나 복도에 빼 놓을 수 있다. 단 소방안전을 위한 공간을 두어야 한다. 무거운 서랍은 잠금장치로 잠가 놓는 것이 좋으며 영아용 이불이나 요는 질식 등의 우려가 있어 너무 푹신한 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게시판에 핀을 사용하는 것도 피하도록 한다.

6-4	위험한 물건의 보관
	약물이나 위험한 물건은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영유아들은 발달특성상 호기심이 강하고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어린이집의 모든 종사자들은 영유아에게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물건을 영유아들의 손에 닿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한다. 세척용 세제, 소독제와 각종 약품은 물론 살충제, 조리실의

칼, 가위, 포크, 자료실의 송곳, 강력접착제, 스테이플러 같은 위험물질이나 석유, 성냥과 같은 인화물질 등은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은 곳에 보관한다. 영유아가 위험물질을 사용해야 할 경우엔 반드시 안전수칙을 교육하고 성인의 관리 감독 아래 사용하게 한다. 특히 화장실의 경우 세척제과 청소도구들은 영유아들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별도 보관해야 한다. 영아의 경우 3.5cm이하의 크기를 가진 놀잇감은 코나 입에 넣었을 경우 질식의 우려가 있으므로 관리에 조심 한다.

나. 보호와 대처방안

6-5	**영유아에 대한 성인의 보호**
	교사는 영유아들이 어디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며 각 방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주시한다.

어린이집의 실내외 환경은 교사가 영유아를 한눈에 파악하기 쉽도록 구성하고, 영유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교사 내 업무분담을 명확히 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보이지 않은 공간을 늘 주의해서 살피며 수시로 일어나는 각종 사건을 잘 파악하여 신속하게 대처한다. 교사가 근무를 교대하거나 오전 오후 간식시간이나 점심시간 등 어쩔 수 없이 맡은 자리를 비울 경우 다른 교사나 성인에게 안전에 관한 책임을 인계하고 자리를 떠나야 한다. 자유놀이 시간에 교사가 다른 업무를 처리하지 않아야 한다. 불가피하게 영유아를 돌보면서 업무처리를 할 때는 영유아에게 등을 돌린 자세로 하지 않는다.

6-6	**영유아의 인계과정**
	영유아의 인계과정에 대한 규칙을 정하고 이를 준수한다.

어린이집에서 영유아가 등·하원할 때는 영유아의 부모를 반드시 확인하고 인계해야 한다. 영유아가 등원할 때는 영유아의 건강상태나 기분, 식사여부 등을 부모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귀가할 때에는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영유아가 처음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시점부터 영유아를 인계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만약의 사고를 예방한다. 영유아는 부모에게 확인한 사람에게만 인계하도록 하며 인계할 때 부모가 아닌 낯모르는 성인으로 바뀐 경우는 반드시 전화 확인이나 서명 확인을 한다.

6-7	나들이 안전관리
	나들이 갈 때 안전을 위한 규칙을 마련하고, 비상약품을 상비한다.

나들이는 어린이집 밖에서 이뤄지는 활동이니만큼 오가는 길의 안전문제가 중요하다. 또한 나들이 장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과 사고에 주의하여 영유아들에게 안전수칙을 교육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안전한 놀이기구 사용법, 나들이 할 때 위험물과 위험한 장소 알리기, 공중도덕 지키기 등을 통해 안전하고 즐거운 나들이가 될 수 있게 한다. 나들이를 가기 전에는 반드시 물과 간단한 비상약품, 휴지, 휴대폰, 비상금 등을 챙기며 더운 여름철에는 자외선 차단 크림을 바르고 모자를 써서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는 것이 좋다. 시간이 다소 많이 걸리는 나들이일 경우 간단한 간식을 준비하여 영유아가 지치지 않게 한다. 나들이를 갈 때는 반드시 교사 혹은 성인이 인솔하여 가도록 하며 길을 잃어버릴 경우 등에 대비하여 어린이집과 보호자의 연락처가 적힌 이름표를 필히 착용하고 교통안전 수칙을 준수한다. 도보로 나들이를 갈 경우, 차가 많이 다니는 길보다는 인도를 택해 가며 차가 지나다닐 경우 등에 대비한 교육을 반복 실시하여 안전을 위한 습관이 몸에 배게 한다.

교사는 수시로 영유아의 상황 및 인원수 등을 확인하여 만일의 안전사고에 대비하며 영유아가 개별적으로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나들이 가기 전에 영유아들이 짝을 지어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비상시 행동요령, 연락체계 등을 반드시 갖추어야 함은 물론, 교사들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보다 안전한 나들이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6-8	나들이 차량 운행
	나들이용 차량을 운행할 경우에는 차량 안전설비를 갖추고 교사가 동승하여 운행한다.

공동육아어린이집에서는 직접적인 만남을 통한 소통을 중요시하여 등하원시 차량운행을 하지 않는 것이 보편적이다. 나들이 역시 지역사회와 자연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중요시하는 맥락에서 가급적 걸어서 갈 수 있는 터전 주변의 장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자동차보험, 상해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고 책임 있는 운송업체의 차량을 이용한다. 차량에 명시된 정원을 준수하고 안전설비를(안전띠, 구급상자) 갖추어야 한다. 배상보험의 책임이 가족 등에게 한정되어 있는 아마의 차량은 이용하지 않은 것이 바람직하다.

차량 운행 중에는 모든 탑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고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운전자 외에 교사 등 책임 있는 성인이 동승한다. 차량에서 내리고 탈 때는 반드시 성인이 먼저 안전 여

부를 확인한다. 영유아들이 질서를 지켜 승하차하도록 하고 차량 맨 앞좌석에 영유아를 태우지 않는다. 운행 중에는 장난이나 이동을 삼가 하도록 하는 등 안전수칙을 지킨다. 운전자는 영유아의 안전을 위하여 서행 운전하며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대중교통 이용에 관한 주의사항을 교육하며, 반드시 1인 이상의 교사가 동행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한다.

	상해보험 가입 및 공지
6-9	영유아의 사고에 대한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사고가 날 경우 책임의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모든 부모들에게 설명하여 알리고 있다.

어린이집에서는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경우를 대비하여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안전사고의 내용, 배상의 책임, 사고의 소재 등에 대한 내용 및 어린이집과 부모의 책임에 관한 내용을 정관이나 운영규정 등에 명시한다. 안전사고에 대한 어린집의 제 규정은 입소 시 신입조합원교육이나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명확하게 전달한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의 모든 부모와 종사자들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의 소재와 한계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린이집은 영유아가 등원하여 하원할 때까지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고 대비해야 한다. 영유아의 부모나 보호자는 입소 시 영유아의 건강상태 및 특이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또한 매일매일 달라지는 영유아의 건강상태나 주의사항 등을 날적이나 게시판 등을 통해 미리 어린이집에 알려줌으로써 영유아가 적절한 보호를 받게 한다. 어린이집에 영유아가 입소할 때 상해, 화재, 배상보험에 가입하며 보험의 종류와 보상한도 등에 대해 부모와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비상사태를 대비한 시설설비와 대처방안
6-10	화재 등 비상사태를 대비한 안전대피시설과 설비가 갖추어져 있고 비상시 대처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한다.

어린이집에서는 화재 등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안전대피시설을 설치한다. 자동화재 탐지기, 비상벨, 소화기, 옥내 소화전 등을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구비하고 비상구에는 상단에 비상구 유도등을 달며 잠금장치는 반드시 문 안쪽에 설치한다. 어린이집이 2층 이상인 경우에는 비상계단 또는 영유아용 비상 미끄럼대와 기타 안전사고에 대비한 대피시설, 장비 등을 구비한다. 가스를 사용할 경우는 가스안전차단장치 등을 설치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사고를 예방한다. 비상시를 대비하여 영유아 부모, 교사 등의 비상연락망과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소방서, 병원, 파출소 등 관계기관의 연락처를 미리 준비하여 전화기 주변에 부착한다.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의 대처요령과 종사자들의 역할 분담표, 신고방법, 비상출구나 계단

의 사용절차, 소화기 사용법 등을 미리 준비하고 교육하여 만약의 사고가 확대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한다. 또 소화기나 자동화재 탐지설비, 누전차단기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6-11	안전교육과 정기적인 소방교육
	종사자와 영유아에게 다양한 안전교육을 하며 월 1회 이상 소방훈련을 실시한다.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안전에 관한 지식 및 행동요령을 교육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모든 어린이집 종사자들은 화재, 교통사고 등 다양한 안전관리 요령을 교육받고 터득해야 하며 매년 안전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안전교육은 놀이기구나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 성교육, 교통안전교육, 물놀이 안전교육, 약물안전교육, 지진, 태풍 등 자연재난에 대한 안전교육 등 여러 위험에 대비하여 영유아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한다. 또한 안전한 생활의 필요성, 지식, 습관이 몸에 익히도록 하는 것에도 그 목적이 있다.

또, 매월 화재나 자연재난 등에 대비한 정기적인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소방훈련의 경우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 이외에도 불시에 실시하여 대피능력을 키울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

부록.
문서목록

1. 인증위원회 제출용 문서

- 자체점검보고서(지정양식)
- 조합현황보고서(지정양식)
- 정관 및 각종 규정(운영규정, 인사규정, 급여규정, 공적기금 등)
- 총회 자료집 및 총회 회의록(조합 및 각 분과별 사업계획 및 평가서 포함)
- 세입 세출 예산서, 세입 세출 결산서, 세입 세출 결산 총괄 설명서
- 월별 세입 세출 예결산서(4개월)
- 교사임금 지급내역서(4개월)
- 이사회 회의록(4개월)
- 기타 조합관련 문서(조합 운영원칙, 갈등조정 관련문서 등)
- 종사자 기록부
- 연간 교사 교육 계획서 및 평가서(신입교육, 적응평가, 재교육 등)
- 연간 교육계획 및 평가서, 월간 교육계획 및 평가(4개월)
- 터전 사진 – 현판, 정면, 측면, 실내외 등

2. 터전 구비문서

– 보육시설 평가인증에서 제시하는 문서들을 모두 구비해야 하며, 구비 여부는 현장 실사에서 확인한다.

- 터전 정보 안내문 또는 리플렛
- 조합과 어린이집의 주요연혁
- 통장사본
- 식단
- 날적이
- 부모면담일지
- 대기자명부
- 신입영유아 적응절차 안내문
- 생활기록부

- 건강기록부/건강검진기록부
- 영유아관찰기록
- 투약의뢰서/보고서
- 귀가동의서
- 등원자제 질병 안내문
- 소방훈련 보고서, 평가서
- 비상대피로, 비상시 교사업무분담표(벽면 게시)
- 실내외 시설안전점검표
- 실내 청결위생 점검표(청소표, 청소체크리스트 등)
- 교재교구대장
- 도서대장
- 비품대장
- 수입, 지출 결의서(어린이집, 조합재정 분리하여 분철 보관)
- 종사자대장/기록부
- 교사임면보고서 복사본
- 종사자보험 서류
- 교사 회의록
- 교사회 업무분담표(일상, 비상시, 하루일과)
- 교사연수대장, 계획서
- 보·교육 계획안(연간, 월간, 주간)
- 보·교육 일지
- 평가서(주간 교사 회의록, 월별, 상반기, 하반기)
- 연간 안전교육 계획안
- 응급처치동의서
- 비상연락망
- 근로계약서
- 회의록(방모임 회의록, 소위모임 회의록 등의 문서)